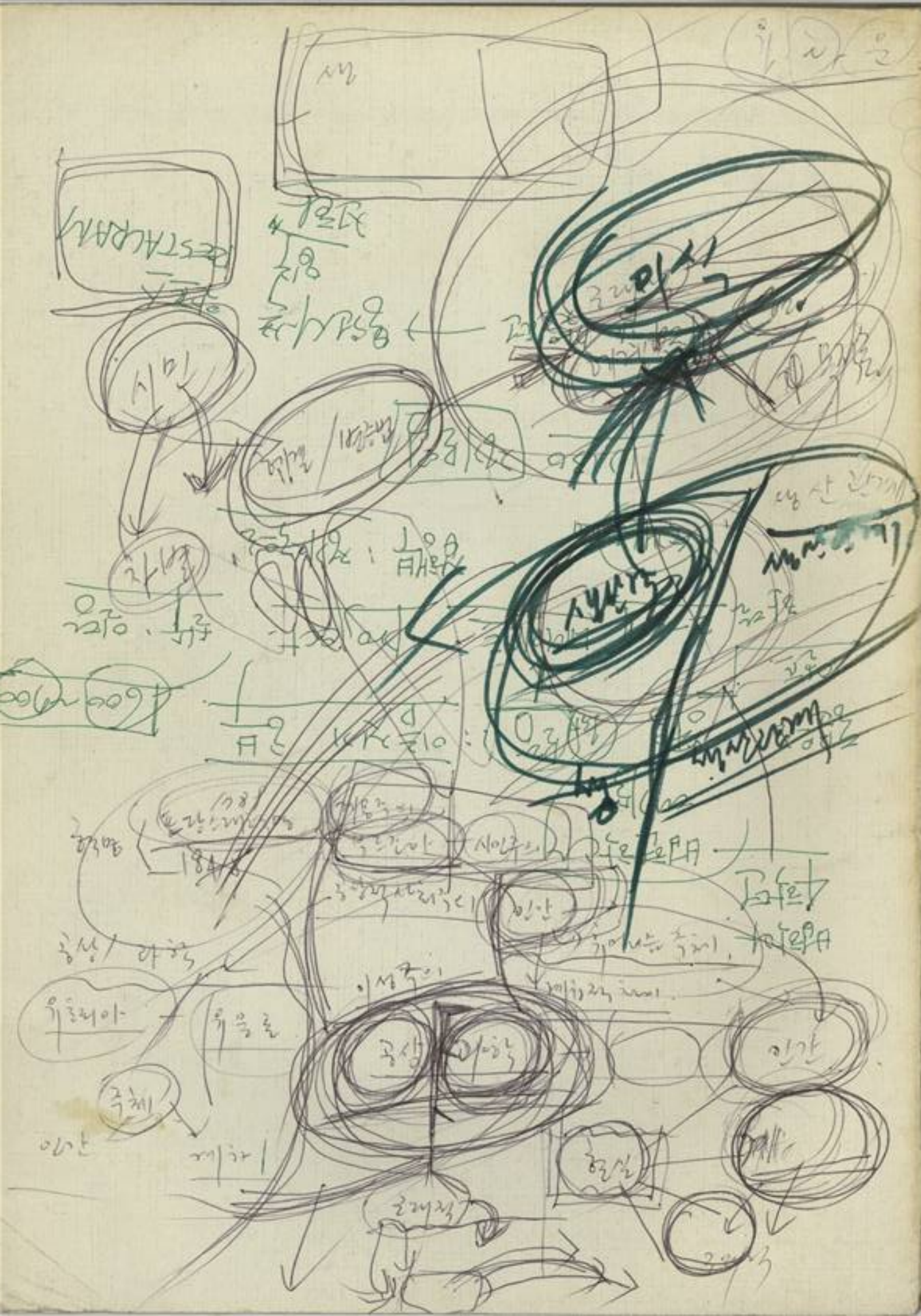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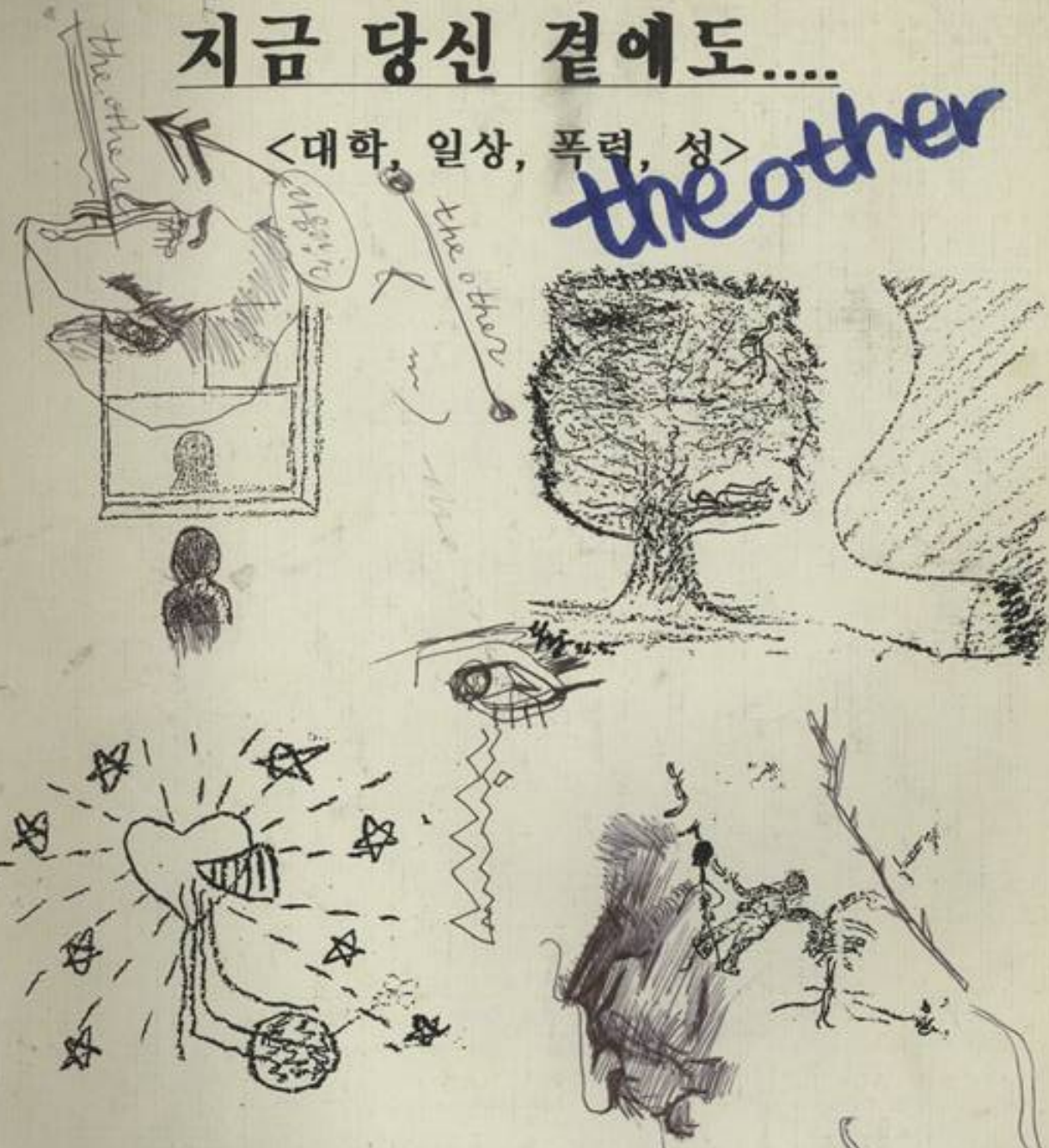




지금 당신 곁에도....

<대학, 일상, 폭력, 성>

the other



일시/ 한양대- 5월 30일 오후 5시반

서울대- 5월 31일 오후 5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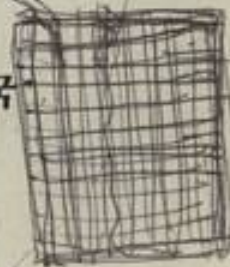
기획/ 대학인의 포럼 뿌/리/내/림

주최/ 한양대 총학생회 여성위원회(준)

서울대 자연대 성방, 사범대 성정치국

후원/ 한양대 총학생회

사회평론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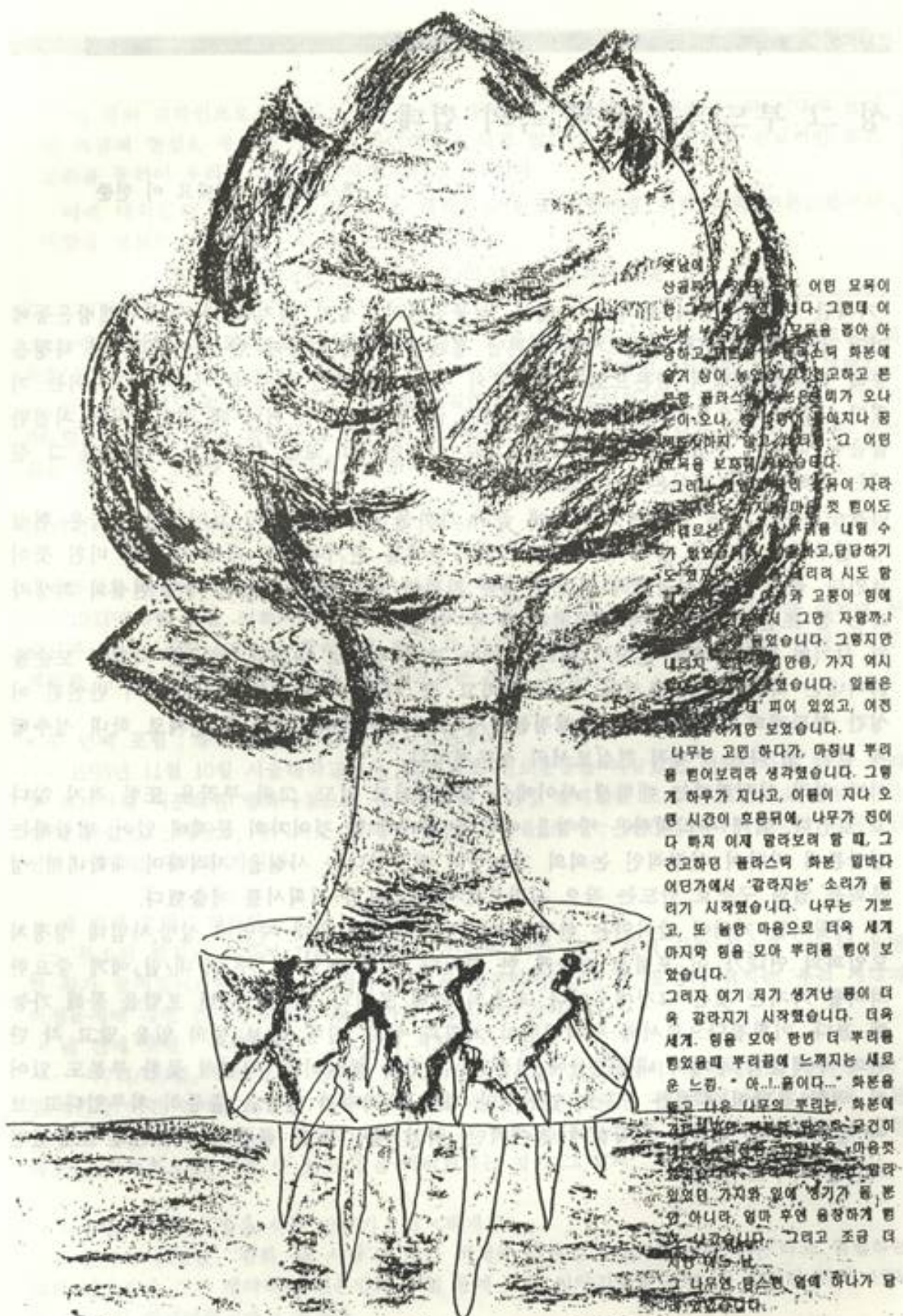
자료집 표지에 실린 그림은 「뿌리내림 열린 작은포럼」의 하나였던
 "작은 성포럼"에서 '나의 성'을 그린 그림들을 모아 본 것입니다.
 어떤 느낌이에요? 그리고 어느 그림이 남자의 그림일까요?

Index...

1. 뿌/리/내/림	
1) 행사 소개 - 4기 대표 이현준	/2
2) 단체 소개서 - 4기 기획단원 김현준	/3
2. 한양대 총학생회 여성위원회	
“포르노, 재현된 성관계에 관하여”	/8
3. 서울대 자연대 성방, 사범대 성정치국	/18
“대학사회의 성, 성폭력”	
4. 두런두런 나누는 성 이야기, 피임법	/34
5. 기획정보	/39
6. 기획서	/43

행사순서

- 1-1. Color of my Sexual life.
2. 피임! 피임??
(휴식시간)
- 2-1. 패널 토론
2. 분임 토론
3. 정리



성 그 부드러운 표피 속의 껍데기

뿌/리/내/림 4기대표 이 현준

기획단 내부는 성의 문제에 대해서, 서동진씨의 '성의 정치학'과 동성애해방운동에 먼저 접했다. 기획단 내부로서는 성관념 경계허물기를 가능케 한 일이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의 혁명적 담론으로의 성담론의 수용이 기획단 내부에 이루어졌고, 이는 기획단 내부에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영향을 준 부분이었다. 허나 왜 성인가라는 치열한 물음이 따르지 못했고, 성담론과는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성의식의 이중성과 그 실태는 오히려 간과되어온 면이 없지 않았다.

마광수교수는 이에 대하여 기획단에 좀더 가까운 성, 쉬운 듯이 보이지만 결국은 현실과 결부되어 풀기가 쉽지 않은 성에 대한 문제를 환기시키는 데에 영향을 미친 듯이 보인다. 물론 그의 성관념의 한계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마교수 역시 현실의 회생자라는 점 또한 논의 과정에서 명백히 할 수 있었다.

현 시기의 대학생에게 있어서 성의 문제는 크게 셋으로 나뉜다. 하나는 사회의 모순을 읽어내는 하나의 도구로서의 성정치학이고, 또 다른 하나는 대학내에 이미 만연된 이성간 성관계와 그를 둘러싼 문제점들에서 드러나는 현실이고, 세 번째로 학내 성추행과 같은 또 다른 구체적 현실로서의 성문제이다.

이미 성적 이성관계는 대학생 사이에서 일반화되고 있고, 그의 부작용 또한 적지 않다고 보인다. 이에 뿌리내림은 방점을 어디에 뒀어야 할 것이가의 문제에 있어, 범람하는 성담론에 비하여 실질적인 논의의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대학내의 성문화를 열린 구조로 만드는 작으 시작으로서의 성포럼 기획서를 제출했다.

이 기획서를 기꺼이 받아안은 한양대 여성위원회와 서울대 자연대 성방,사범대 성정치모임과의 연대가 이 포럼을 가능케 한 힘이다. 이번 포럼이 '뿌/리/내/림'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그것에서이다. 최초의 연대 포럼의 형식이 이번 포럼을 통해 가능해졌다. 기획집단으로서의 뿌리내림이 기획과 협의, 진행, 홍보 등의 일을 맡고 각 단위의 주제들이 주제의 내용생산에 집중할 수 있는 방식이다. 적절치 못한 부분도 있어서, 역할 분담이 혼재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체로 각자의 일들을 훌륭히 치루었다고 보여진다. 아직 행사를 시작하기 전이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그동안의 소중한 시간을 나누고 싶다.

"이 땅의 대학인으로서, 젊은이로서 우리의 임무는 막중하다. 이념의 상실화 시대에 들어선 지금의 현실은 우리를 개인화, 파편화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하고 진보적인 토론문화를 통하여 우리는 지금의 상태를 극복할 수 있다."

이에 대학인의 포럼 '뿌/리/내/림'은 대학인의 진보적 발전을 위해 대학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담보하고자 한다."

- 94년 6월경에 만들어진 '뿌/리/내/림' 회칙의 전문 -

93년에 결성된 대학인의 포럼 '뿌/리/내/림'은 위에서 밝힌대로 '대학인의 올바른 토론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하여 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지금까지 9차례의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제 10번째 포럼을 여는 지금, 지금까지 열렸던 '외부포럼연혁'에 대한 소개를 통해 '뿌/리/내/림'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 보고, 지금 '뿌/리/내/림'이 걷고 있는 길과 앞으로 걷고자 하는 길은 무엇인지 여러분께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대학인의 포럼 '뿌/리/내/림'은 '무엇을' 했나?

* 발족식과 아울러 열린 첫 포럼 : 좋은 사람 만나기 - 1 <임진택>

-- 1993년 9월 15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뿌/리/내/림'의 발족식과 아울러 소리꾼 임진택 선배님과 '좋은사람만나기'라는 형식으로 제 1 회 포럼이 열렸다. 이날은 '현 대학내 문예계의 문제점과 나아갈바를 고민하는 장'을 만들어보자는 것이 그 취지.

* 두 번째 포럼 : 좋은 사람 만나기 - 2 <김현장>

-- 1993년 11월 10일 서울대학교에서, '80년대초 진보운동을 이끌었던 선배님과의 만남'이라는 취지하에 미문화원 방화사건으로 복역하셨던 김현장 선배님을 모시다. 80년대초 운동의 '극점'에 계셨던 선배님과, 당시와는 명백히 '다른' 양상을 보이는 90년대초 후배들과의 공식적인 만남이었다는 의미를 가진다.

* 세 번째 포럼 : 작가와의 만남 <공지영>

--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고동어', '인간에 대한 예의' 등의 작품 등으로 너무나 유명한 작가 공지영씨와의 만남이 홍익대학교에서 이루어진다. 이 날 포럼의 취지는 '우리 시대의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과 토론의 장을 마련' 해보자는 것이었다.

* 네 번째 포럼 : 주제 포럼 - 1 <선거 치르기>

-- '뿌/리/내/림'이 시도한 첫번째 '주제포럼'. 내정된 토론자들이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21세기를 위한 연대', '경실련 대학생회', '서울대 민중정치 연합', '진보학생연합', '서울대 선관위 부위원장' 등으로,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는 학생운동집단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는 것이 그 의의.

* 다섯번째 포럼 : 좋은 사람 만나기 - 3 <박재동>

-- '한겨레 그림판', '만화, 내 사랑'의 작가 박재동 선배님. "만화도 예술이다."라고 역설하는 그의 예술관과 그가 생각하는 일본만화 수입 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던 자리. 1994년 4월 1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다.

• 여섯번째 포럼 : 좋은 사람 만나기 - 4 <유홍준>

--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인다."라는 말을 히트시키면서 인문교양서로는 '드물게'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나의 문화 유산 답사기'의 저자 유홍준 교수님과 만남이 1994년 9월 10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마련되다.

• 일곱번째 포럼 : 주제 포럼 - 2 <교육시장개방>

-- 1994년 9월 30일, 닥쳐오는 현실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못했던 <교육시장개방>과 그에 따른 <대학교육의 미래>에 관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다. 토론자는 민교협 상명여대 박거용 교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현정 고등교육연구소장, 서울대 총학생회 교육개혁국 유동훈씨 등이었고 경희대학교에서 열리다.

• 여덟번째 포럼 : 좋은 사람 만나기 - 5 <변영주>

-- 정신대 할머니들에 관한 영화인 '낮은 목소리-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를 제작하여 화제를 불러 모았던 변영주 감독님을 1995년 5월 22일 한양대학교에 모시다. 그가 감독이 되기까지의 과정과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 2' 편을 찍게된 배경 등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다.

• 아홉번째 포럼 : 주제 포럼 - 3 <노래운동의 길찾기>

-- '민중가요의 범위문제, 민중가요가 침체되어가는 원인, 그리고 노래운동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 등의 문제 등을 토론했던 자리로 1995년 11월 13일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열리다. 토론자로 <노래를 찾는 사람들> 대표 김보성씨와 문화평론가 이영미씨를 모시다.

이상의 아홉번의 외부포럼이 대학인의 포럼 '뿌리/내/림'이 이제까지 걸어온 '주요한' 발자취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뿌리/내/림'은 술한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지금, '뿌리/내/림'이 자라나는 데에 커다란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2. 96년 지금 우리들이 걷고 있는 길

작년 11월에 개최했던 외부포럼을 마지막으로, 그 이후에 '뿌리/내/림'은 중대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 '변화'의 흐름이 바로 '지금'을 관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11월 - 'ON-LINE FORUM'과 '정당' - 뿌리/내/림의 성립

대학인의 포럼 '뿌리/내/림'은 오프상태의 기획단이 갖고 있던 '내,외부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자, 급격히 도래하고 있던 '정보화 사회의 도래' 라고 하는 흐름에 대한 적극적 대처의 일환으로 P.C 통신 '나우누리' 작은 모임내에 있는 사회영역, 15번에 '뿌리/내/림'의 작은모임을 개설하였습니다. 이 작은 모임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지향합니다. 첫째, '다양성의 공존', 둘째, '비판적이고 진지한 지성인들의 모임', 셋째, '아래로부터의 목소리 수렴', 넷째, '올바른 토론문화의 정착',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렴되어 논의된 성과물의 공유를 통한 '여론의 재창출'을 이루는 언론'입니다. 이러한 지향하에 '뿌리/내/림' 작은모임은 '거품마냥' 부푸른 회원

집단을 지양하고, 보다 실질적인 회원집단을 집중육성한 결과 현재 50명정도의 총 회원, 그 중 20명 정도의 정회원그룹이 중심이 되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뿌리/내/림'은 통신안의 정기채팅을 '토론'의 시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당토론'(약식토론을 말하며 엄격한 물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춘 토론 방식. 그러나 생각보다 '가벼움에' 정도되어 있는' 네티즌들에게는 부담이 된 모양)을 만들어 4번정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통신모임과의 '차별성' 획득에도 성공한 편입니다. 그리고 보다 적극적인 '실천'을 위해, 기존의 오프상태에 있던 기획단이 실행하고 있던 외부포럼을 '온라인포럼(ON-LINE FORUM)'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전환하여 통신영역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온라인포럼이란 쉽게 말해, 통신상에서 개최하는 포럼을 말합니다. '뿌리/내/림'은 지난 96년 4월 14일 새벽 00시 30분~02시 30분 사이에, '뿌리/내/림' 작은모임의 대화방에서 'MBC 문화방송 노조 파업의 진상과 의미를 찾아서' 라는 주제하에 제 1 회 온라인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날은 MBC 문화방송 문화과학부 최혁재 기자님과 함께 당시 파업과 관련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 포럼은 한국사회에서 갖는 의미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기존언론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받는 상황속에서 '힘이 빠져가던' MBC 노조의 파업에 '조금이나마' 힘을 실어 드리고, 파업의 진상과 의미를 통신상의 많은 이용자들에게 알려 여론을 조성해 보고자 했던 의도에서 열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의 포럼내용을 나우누리 내 모든 대학동호회 및, 기타 관련동호회 등에 공유시키기도 했습니다.

3. 5월 - '열린 작은 포럼'의 성립과 실행

작년까지 '뿌리/내/림'이 해왔던 대표적인 활동인 '외부포럼'은 그 일회성으로 말미암아 내용의 심화와 대학사회에 대한 영향력의 한계를 나타내었고, 소모적인 실무작업에 매달리게 됨으로써 단체 내부의 충분한 소통과정의 부재와 기획역량의 소진을 가져왔습니다. 이로 인해 '뿌리/내/림'은 '실무를 위주로 하는 이벤트 단체'가 아니냐 하는 내부적 각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단체 내부의 토론육구충족과 풍부한 내용의 담보, 다양한 형식적 실험을 하기 위한 새로운 틀거리로 '열린 작은 포럼'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거대 규모의 외부포럼과는 달리, 청중의 다소에 구애됨이 없이 소수의 인원을 '한계범위'로 설정하고, '해당 포럼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외부참여자로 설정했습니다. '열린 작은 포럼'은 적은 기획단 내부성원들이 포럼 참가인의 토대를 이루지만 외부인들에게도 개방한다는 점에선 '열린' 포럼이며, '작은규모'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작은' 포럼입니다. 지금까지 총 4번의 포럼을 열었는데, 첫째 '4.11 총선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열었던 '총선포럼', 둘째 '와우'라는 문화교양서를 텍스트로 삼아 해당 영화를 보고 토론하는 문화포럼, 또 '계슈탈트 심리치료법'이라는 책에서 힌트를 얻어 본격화시킨 '소통'의 방식을 실험해보는 '소통포럼', 또 이번에 열리는 성(性)포럼의 예비시행이었던 '작은 성(性)포럼'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것이 담보할 수 있는 '풍부한 내용성', '다양하고 창조적인 형식적 실험' 등의 요건을 검토할 때, 많은 잠재력을 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앞을 바라보면 무엇이 보이는가? (향후 계획에 대하여)

1) 대학인의 포럼 '뿌/리/내/림'은 93년 이후 줄곧 유지되어 오던 기존의 틀에 대한 변화의 요구에 직면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지향점의 설정을 통해 '뿌/리/내/림'이 나아갈 길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합니다.

첫째, 올바른 토론문화의 정착입니다.

93년도에 제시되었던 기본 지향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최근 대학 총학생회나 일반 학우들 모두가 대학인의 토론문화의 부재를 민감하게 지적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토론문화 현실은 빈곤하기 짝이 없으며 이러한 초창기의 문제의식은 포럼 전반에 걸쳐 중심축을 이루는 '폭넓은 명제'이기에 이 지향에 대한 실천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둘째, 대학사회내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뿌/리/내/림'은 보다 선도적이고 진보적인 문제의식, 그리고 흐름을 잡아내어 대학사회 전반에 전달하고 퍼뜨리는 '대학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대학환경에 의해 '한정된 정보'만을 접하기 쉬운 대학인들에게 보다 선진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또한 '넓은 판단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셋째, 민주적 행동의 확대, 심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아직도 비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가 이 사회, 범위를 좁혀 대학 사회내에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에 보다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소통의 구조, 논의의 구조, 의사결정의 구조를 만들고 이를 대학사회 전반에 확대 재생산시키는데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억압적이고 권위적인 논의구조를 타파하고자 합니다.

넷째, 다양한 형식적 실험을 통해 세 시대에 맞는 '형식'과 '내용'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유일무이한 적의 진용이 단순하고 판단의 이분법이 단순했던 시대, 따라서 그들에 대한 대응 방식 역시 분명하고 단순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양화되어가는 사회에서 '모순'과 '억압'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운동은 그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만 합니다. '뿌/리/내/림'은 변화된 현실에 맞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 대안을 제시하는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새로운 방식은 사람들을 조직하는 방식일 수 있고, 여론을 창출하는 방식일 수 있으며, 사람들과 연대하는 방식일 수도 있고, 사람들을 설득해내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뿌/리/내/림'이 해오던 9번의 외부포럼은 최근 성행하고 있는 '제 2대학 운동'과 그 형식성과 내용면에서 많은 유사점을 보임으로써 우리의 활동이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뿌/리/내/림'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보다 새로운 형식의 실험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최근 '뿌/리/내/림'이 몰두하고 있는 부분은 '연대'의 방식입니다. 이번의 성포럼 역시 '뿌/리/내/림'으로선 처음으로 각 대학내의 관련 학생회, 혹은 위원회와 서로 '연대'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러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들은 새로운 사회에서 '네트워크적인 방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또한 실천하여 검증함으로써 연대의 전형, '네트워크적인 연대'의 '형식'을 창출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네가지 지향은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대학인의 포럼 '뿌/리/내/림'은 이에 얽매이지 않고 보다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대학사회에 진보적인 흐름을 만들어 내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이를 위한 저희의 당면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외부포럼 : 이번 학기가 다 가기 전에 '인물포럼'을 한 번 더 개최한다. 현재 생각으로는 '한국언론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이라는 내용으로 손석희 MBC 문화방송 아나운서를 모시거나 혹은 마광수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둘. 열린 작은 포럼 : 내용적으로 선도성, 형식적 실험이라는 두 가지에 천착하여 열린 작은 포럼을 보다 상시적으로 일반학우들에게 개방한다. 그러나 애초의 성립동기대로 소규모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틀과 사고방식에 구애됨이 없이 젊은이다운 다양한 내용적, 형식적 접근을 시도한다. 최근 준비되고 있는 것은 '필로시네마'라는 책을 텍스트로 한 '영화포럼'과 '학부제, 그 이후.....'라는 포럼이다.

셋. 온라인 포럼과 통신모임의 확대 : 수직적 논의구조를 배격하고, 수평적 논의구조를 복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온라인 포럼. 제 2회 온라인 포럼에서는 '오늘 운영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통신모임의 운영자들이 모여 서로의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넷. 소식지와 무크지의 발간 : '뿌/리/내/림'의 소식지를 발간하여 일회성 행사로 끝나기 쉬운 포럼활동을 문서화, 파일화하여 상시적인 자료로서 활용하도록 한다. 또 이러한 소식지의 축적을 통해 다양한 거리를 갖고 무크지를 발간할 예정이다. 후자는 아직까지는 다소 요원한 상태이나,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할 예정이다.

이러한 활동계획의 실천을 위해 대학인의 포럼 '뿌/리/내/림'은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참여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걸음마를 떼고 있는 우리를 지켜봐주시고 많은 격려 바랍니다.

한양대

포르노, 재현된 성관계에 관하여

이화여대 여성학 석사과정 윤 자영

문화평론가 이 재현

총학생회 여성위원회 위원장 배 현경

총학생회 여성위원회 연구위원 김 래영

포르노와 여성

이화여대 여성학 석사과정

윤 자영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청소년과 가정을 사회의 악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그 덕분에 수치스럽고 뻣뻣하지 못한 차마 입에 올리기 거북한 사회의 악은 어쩔 수 없이 공론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다. 결코 자신을 해부하고 싶지 않은 소위 '어른들'은 더욱 더 강고한 질서유지를 위하여,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개탄과 자성의 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어느 때보다도 '외설', '음란', '에로 비디오', '포르노'에 관한 담론이 뜨겁게 공중파를 달구고 있다. '음란물', '외설물', '포르노'가 범람하고 은밀히 숨어서 보아 왔던 현상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는데도, 마치 갑자기 터진 일인 듯 이제 더 이상은 안되겠다는 듯이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여하간 공식적인 담론들의 효과는 포르노와 포르노적 이미지가 깊이 침식하고 있는 우리 일상의 주변들과 우리자신의 문화와 경험을 성찰하는 계기로 삼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나쁘지만은 않은 일이다.

어디서부터 얘기를 시작해 들어가야 할지 사실 막막하지만 일단은 우리의 현재의 위치를 점검해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보자. 누구나 자기의 위치에서 포르노문화에 대한 통찰이나 직접적인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포르노 혹은 포르노적 이미지에 노출이 되어 있거나 차단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 문화현상에 얽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점에 있어서는 누구의 경험이란 공평한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극단적으로 포르노를 수도 없이 보았던 그래서 인제는 식상하고, 달리 말할 것도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로 남성) 포르노 하면 웬지 두렵거나 무섭거나 찝찝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할 뿐인 나의 생활권 밖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주로 여성)이 있다. 그러나 단지 포르노를 많이 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경험적 우월성을 가진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각각의 차별화된 경험은 바로 이 시대의 이중적 성담론의 산물일 뿐이며 지금 필요한 것은 이 이중성을 체현하게 하는 벽들을 허무는 것이다. 아마도 오늘의 자리는 바로 이러한 것을 시도하는 자리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선 포르노는 무엇인가라는 문제부터 들어가야 할 것 같다.(정의를 내리기 위함이 아니다) 포르노는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상 필연적으로 '성sex'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포르노는 바로 성에 대한 담론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뜻이다. 포르노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육체와 섹스와 성윤리와 성해방을 얘기하게 되었던 것을 누구나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사람들의 성sex에 대한 인식과 태도, 실천은 시대와 문화를 달리해서 변화한다. '지금의 성문화는 아직 보수적이지가...' '요즘 신세대 애들의 일회성 쾌락주의...'와 같은 언설들은 '성'은 고정된 본질과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회 역사적 구성물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따라 무엇이 포르노이고, 어디까지 용인할 만한 포르노인가, 포르노는 해방적인가, 포르노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다양한 입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포르노는 이러한 것이다'라는 정의와 구분기준의 문제는 담론 속에서 존재하며, 포르노라는 것은 특정 담론에 의해 형성되는 과정 중에 있다. 따라서 현실은 포르노에 대해 특정한 위치를 점유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담론들이 경합하고 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한

국사회에서 포르노와 음란물에 대한 현상을 진단을 둘러싼 갖가지 입장-도덕주의, 규제주의, 자유주의, 여성주의, 성해방-들은 이렇게 경합하고 있는 공식적인 담론들이다.

이제부터는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담론들 중에서 필자가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은 것들을 몇 가지 토론해 보기로 하겠다. 아마 몇 가지 지적하는 과정에서 지금의 담론들의 결모습을 훑어볼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담론들의 효과로서 개인들의-경험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결론부터 미리 말하자면 지배담론들 속에는 '여성'이라는 범주를 완전히 배제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포르노라는 성적 표현물에 대한 해석이나 그 대책논리에 있어 '여성'은 거의 암묵적으로 남성과 동일시되고 있다. 필자는 현실 속에서 포르노문화에 연루되고 있는 여성들의 경험과 구조적 맥락이 남성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경험을 무시, 간과하는 논리들을 펴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그리고 미흡하지만 어떤 관점에서 포르노를 문제화시켜야 하는지 제시해보고자 한다.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포르노'인가

두말할 것도 없이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포르노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것은 그 속에 담겨 있는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성행위와 연결되고 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회랍어로 '포르노'가 매춘부들을 묘사한 기록물을 뜻한다고 한다면 포르노는 노골적인 성행위를 담고 있는 것을 지칭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따라서 포르노는 편리하게 하드 코어(hard-core), 소프트 코어(soft-core), 로만 포르노(roman-porno)로 나눈다. 잘 알겠지만 하드 코어는 진짜 포르노라고 해야 할까, 폭력적 성관계, 노골적인 성기노출과 성기 삽입, 사정행위 등을 보여주는 것이고 소프트 포르노는 흔히 말하는 에로비디오가 속할 것이고 포르노잡지와 스포츠 신문에 있는 사진들도 포함 가능하다. 로만 포르노는 일본 포르노의 특징을 염두에 두면 될 것이다. 이것은 성기와 성행위 묘사의 정도 여하에 따라 나누어 놓은 것인데 이것은 사법부가 규제의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에서 법적 근거를 세우는 것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말하자면 받아들일 만한 것과 금지해야 할 것을 나누기 쉽도록 세운 기준이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것은 성과 육체에 대한 어떤 기본인식에서 비롯된 것인가.

성행위 자체와 성행위를 묘사한 것 그 자체는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해로운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성행위를 묘사했다고 해서 그것을 포르노라고 지칭하는 것 뒤에 놓여 있는 도덕적 질타나 성적 수치심은 성을 더럽고 동물적인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숨어 있다. 또한 포르노를 성행위의 표현수위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포르노가 담고 있는 남성과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관념과 가치의 문제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성기와 성교만 노골적으로 노출되지 않으면 남성지배-여성복종이라는 함축적 의미가 담긴 경미한(?) 포르노가 남녀의 권력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상관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포르노=성행위재현물이라는 공식은 단지 모든 포르노, 모든 성행위를 자유롭게 개방하라는 해결책으로 귀결하고 말뿐이며 포르노를 완전 개방하거나 전용관으로 유도하는 것이 성적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며 성에 대한 낡은 도덕적 틀을 깨부수는 것이라는 편리한 해결책을 제시할 뿐이다. 성적 표현물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검열이 꼭 필요한 것이며 저급하고 버려야 할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던 태도는 어느 정도 벗어버려야 하겠지만, 포르노가 진공 상태에 놓인 성적 재현물이 아닌 이상은 포르노의 생산과 소비와 유통구조는 일련의 맥락-가부장제- 속에서 지금 사회의 가치와 편견을 반영하고 역으로 그것을 강화해 나간다. 그렇다면 이제 포르노는 그것이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했기 때문에 비난할 것이 아니라 지금의 가부장적 자본주의사회에서 그것이 기능하고 있는 지점에서서 평가해야 할 정치적인 문제가 된다.

포르노는 이론이고 강간은 실천이다?

서구의 급진적 페미니스트들 도어킨이나 맥키논과 같은 진영에 있던 사람들은 '포르노는 이론이고 강간은 실천이다'라는 말로 포르노에 대한 분노를 표명했다. 이것은 포르노와 강간 및 성범죄와의 인과관계는 포르노를 옹호하려는 사람들이나 그 해악성을 증명하려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중심테마이다. 그리고 그 해답은 무관하다, 직접적이다, 아마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등등 상이하다. 포르노를 피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텍스트로서 지금의 권력관계를 읽어 내기 위해서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위와 같은 테제를 가지고 있는 페미니즘을 보수주의자로 몰아 붙이고 있다. 즉 포르노는 이론이고 강간은 실천이라는 주장은 포르노를 본 남자는 달려나가서 지나가는 여자를 강간할 것이라는 자극-반응이론에 기초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비판(포르노와 폭력과의 인과성)에 대해 다른 관점으로부터 일면 동의하고 있다는 것과, 많은 페미니즘들 가운데 한가지를 골라내 그것을 페미니즘의 전체 입장으로 단일화하는 것의 정치적 함의에 대해 지적을 하고자 한다. 먼저 위와 같은 주장은 포르노와 성범죄, 폭력간의 인과관계, 물리적 영향에만 주목함으로써 포르노가 가지고 있는 다른 문제들을 간과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포르노는 비단 성범죄라는 측면에서만 여성 억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다. 특히 남성의 성범죄에 집중하면서 포르노가 여성(제작에 참여한 여성을 제외하고)의 정서와 일상생활과 맺는 관계를 소홀히해왔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포르노에 대한 페미니즘 내의 논의는 대단히 복잡하며 이상에서 제시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페미니즘 내에서도 검열에 대해 그것이 여성해방주의적인 시각적 이미지까지 검열의 대상에 올려놓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검열에 반대하는 진영도 있고, 포르노를 폭력 자체와 동치시킬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재현물로서 그 의미는 맥락 속에서 형성된다는 입장도 있으며 여성에게 해를 주는 포르노만 규제하면서 나아가 에로티카¹⁾의 가능성까지 열어 두는 진영까지 다양하다. 그런데 지금 페미니즘의 여러 논의들 중에서 '포르노는 이론이고 강간은 실천이다'라는 테제를 골라내어 페미니즘을 공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도어킨과 맥키논은 오히려 포르노 제작에 착취되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물리적 정신적 폭력과 생명의 위협에 대해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포르노는 성인문화, 청소년만 안보면..

포르노를 규제하는 사람들은 포르노(음란물)는 하수구문화이며 성욕의 배출구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어느 정도는 그냥 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매춘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과 어딘지 닮은 데가 있다. 그리고 포르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 일부 예술가들(?)은 그것이 어엿한 수요층을 가지고 있는 성인문화의 하나라고 주장한다. 다른 예술장르와는 달리 수요층이 있는 것으로 그 존재의 타당성을 증명 받으려 한다. 정말 소비자본주의적인 관점이다. 따라서 그들은 성인들은 포르노를 봐도 상관없다는 것이며 오히려 볼 권리까지 주장하는 것이다. 그들이 문제삼는 것은 단지 아직 심신이 약하고 미성숙한 청소년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청소년들이 볼 수 없도록 제반 장치를 강구하는 것, 그러나 이

1) 에로티카(erotica)는 평등하고 인격적인 성행위를 재현한 것으로 에로티시즘이나 에로비디오의 에로와는 다르며 이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제는 숨어서 보지 않고 공식적으로 성인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목표인 것 같다.

여기서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성인과 청소년을 분리시키는 것의 이데올로기적 함의-성담론과 연관된-와 가부장적이고 이중적인 성문화가 세대의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할 정도로 복잡한 단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성인으로 뚱뚱그러지는 '여성'이라는 존재이다. 즉 성인문화라는 이름 하에서 마치 모든 여성들도 포르노를 보고 즐기고 있는 것처럼, 아직 아니라면 그러해야 한다는 것처럼 말한다. 포르노를 보는 여성들은 그들 눈에 어떻게 비치는가. 40대 주부의 채워지지 않는 성욕을 위한 것, 할일 없는 아파트주부들의 포르노보기, 쾌락을 실험하는 젊은 부부, 성에 개방적인 신세대 여성이다. 그리고 이외의 여성들의 포르노에 대한 반감, 두려움, 걱정, 회피, 혐오 등은 이들 담론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포르노는 청소년들에게만 위험한 것일 뿐이다. 보기 싫은 여성들은 안보면 된다는 뜻인가. 그렇다면 포르노는 그 여성과는 무관할 수 있단 말인가.

표현의 자유, 누구의 자유

검열의 칼날에 자신의 창작물이 싹둑싹둑 잘려야 하는 생산자들은 '무엇이든' 표현할 자유를 요구하고 있다. 물론 그동안 검열이라는 것이 성에 대해 관점 없이 가위질해 왔던 점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덕에 폭력적 성행위나 사람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가지가지 성행위(지금 구조상 여성비하, 인격모독인 것들이 많을 텐데) 묘사가 통제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서구의 경험을 보더라도 도덕적 보수주의자들과 페미니즘이 이상과 가치를 달리하면서도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점에서일 것이다.

따라서 필자 또한 검열의 해악성과 순기능성 사이에서 어떤 입장정리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검열의 관점을 재고해야 한다는 점과 표현의 자유와 함께 표현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어떠한 예술도 여성보다, 인간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다.

지금까지 4가지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았다. 서로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밖에 중요한 문제들-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가운데 빠진 것도 있을 것이다. 여성학을 하면서 동시에 위에서 언급한 여성 가운데 한사람으로서 필자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생각한다. 뭔가 나의 경험과 주변 남자들과의 포르노문화와 관련된 경험은 다르다는(옛날에는 볼 생각도 없었으며, 최근에야 비로소 몇 편을 봤으며, 어디 가서 구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3류 극장에 가기는 웬지 꺼려지는) 생각과 그리고 내 주변의 여성들은 나와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바탕이 되었다. 그리고 포르노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여성'을 무의식적, 의식적으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포르노에 사용(?)되는 여자들의 삶은 생각조차 하지도 않는 것 같았다.

최근부터 소프트 포르노라고 할 수 있는 에로물(젖소부인과 같은)이 쏟아지고 공전에 히트를 치면서 포르노에 대한 개방논의가 활발하다. 숨어서 보지 말고 뽀뽀 보자는, 그리고 포르노 보기는 마치 억압된 성을 해방시키고 주체적으로 쾌락을 활용하는 것으로 동일시된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자. 남자와 여자는 공평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인가. 모든 것을 포르노적인 이미지로 바꾸려는 의지와(스포츠 신문의 별 노출도 없는 사진마저도 '짜릿' '황홀' '아찔'한 언어 망에 포섭된다) 성에 무지하여 성기와 성행위만 나와도 그것이 포르노인 지금의 이중적인 성 문화와 차별화된 주체들을 서로 대화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포르노, 재현? 재연?

한양대 여성위원회 위원장 배현경

1. 무엇을 이야기 할 것인가

성에 대한, 문화에 대한 엄청난 이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론가(?)들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게 되어 주변의 문화들을, 성들을 나름대로 분석도 하고 비판하고 추종하기도 한다. 그들 속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허공에 붕 떠 있는 느낌이다. 이 뭔가 빠진 듯한 허전함은 성에 관한 담론들이 자신의 성이나 내 옆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성 이야기가 아니라 타자화된 성의 이야기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급진적인 성해방을 이야기하건 보수적인 성을 이야기 하건 그들의 삶은 자신의 말과 너무나도 다르고 이를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

성에 대한 인식들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변화된 인식과 변화하지 않은 인식들이 개인에 내재되어 더더욱 혼란스럽게 이야기 되고 있기도 하다. 타인의 다양한 성관계를 인정할 수 있지만 자신에게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 등이 그러한 대표적 예가 될 수 있다. 개방된 듯 하면서도, 성자체가 만연해 있음에도 그 단론의 형태가 금기속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형태라는 것, 완벽하게 위반되어 있음에도 금기가 인정되어 억압이 보다 교묘해지고 지속된다는 점이 문제가 될 것이다.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2. 왜 포르노인가

포르노는 여성들이 가장 배제되어 있는 성의 영역이다. 그 제작 과정부터 유통, 소비에 이르기 까지 철저하게 여성과 여성의 성이 배제되어 있다. 여성들은 정말 생물학적 구조상 성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포르노를 보고 싶어하지 않는 것일까? 그들은 포르노를 보면서 단지 역겨움만을 느낄것일까? 그렇다면 포르노를 찍는 여성들은 -포르노 배우로서- 특수한 성기체들인가?

한편, 남성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남성들의 성 교과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성에 대한 성기 중심적 사고, 여성의 성에 대한 대상화 등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들도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포르노를 보면서 진정 쾌락을 얻고 욕망을 해소하는가? 그들의 욕망은 혹 억압으로 부터 발생하는 것은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르노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떠한 판단 기준도 없이 거의 관습적으로 유포되거나 배제된다는 것이다. 이런 류의 - 포르노 등 성적인 것에 대한 - 담론들은 항상 금기를 상정하고 금기속에서 말해져 왔고 이는 이미 억압된 성을 한번 더 억압하는 형식이었다. 이를테면 포르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기보다, 혹은 좀 더 진지하게 포르노를 바라보고 그에 대해 이야기하기보다 이미 형성되어 있는 기존의 억압된 형식들로 말해져 왔다는 것이다.

이는 비단 포르노 뿐만이 아니라 성에 대한 거의 모든 담론의 형식 상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이다. 이러한 형식에서 탈피할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하는 것, 이것이 이번 행사의 일차적 목적이 지점이다.

두 번째 목표는, '성이라는 것을 인간과의 관계라고 생각할 때 포르노라는 것이 진정한 성적 관계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포르노란 무엇이며, 문제가 되는 포르노란 무엇이며, 누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혹은 보지 못하는지, 왜 보게 되었는지, 포르노에 대한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그 안에서의 성적 관계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했는지,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등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보는 것이 감추어지고 뒤틀려 있는 문화(?)인 포르노를 바꾸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리라 믿는다.

3. 포르노란 무엇인가?

포르노를 이야기하려 할 때, 일차적으로 문제제기가 된 것은 '무엇을 포르노라고 보는가'였다. 상품화된 - 특히 광고 등 미디어세계에서 - 성과의, 에로티시즘 영화와의 구분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또, 여성의 포르노(?)라고 불릴 수 있는 하이틴 로맨스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러한 문제제기 아래서 우선 포르노를 다른 것들과 비교, 대조해 보았다.

1) 에로티시즘 영화와 포르노

양자간의 차이는 우선 성기의 노출여부와 노출에 대한 집착여부에 있을 것이다. 포르노에서 가장 중시되는 것은 성기의 적나라한 노출과 광적이리만큼 극대화된 성기집착성이다. 행위의 주체가 되는 두 사람은 서로의 성기를 자극하는 것 외의 다른 관계 방법들을 갖지 않거나 혹은 중요시하지 않으며 화면에 나타나는 것도 거대하게 확대된 성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포르노의 목적은 스토리가 있든 없든 성기를 보여주는 것이다. 인간과 인간의 성적 관계는 (이성애든 동성애든 그냥 아는 사이든 등등) 성기 중심적 성교 이외의 수많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포르노는 성기 중심적 관계를 신화적으로 만들거나 더러운 것으로 만든다. 성기 중심의 관계는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도 더러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이외의 것들과 관련하지 않은 성기중심의 관계란 공허할 뿐이다.

단지 포르노만을 보면서 성적 관계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왜곡될 수 있는 여지가 많고 왜곡되지 않는다해도(?) 그 것은 개개인의 성적 관계에 대한 진지성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포르노 자체만으로 문제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사회적으로 성적 것에 대한 왜곡들이 -개인의 진정한 성적계들을 용납하지 않고 사회적인 고안물에 맞게 변형시켜버리는 것- 선차적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남성 중심적인 현재의 포르노' 또한 그러한 변형작업에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이야기하도록 하자.

에로티시즘 영화라고 불릴 수 있는 것들은 단지 성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 성적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포르노를 보면서 두 연인 사이에서, 혹은 두 사람 사이에서 에로티시즘이 느껴진다면 포르노가 에로티시즘영화이기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두 사람간의 관계에 의한 발생일 것이다. 성적관계의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영화가 에로티시즘영화일 듯 싶다. 그러나 에로티시즘영화 또한 사회적으로 왜곡된 성적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면 문제가 된다.

성의 다양성을 보여주느냐, 일면만을 보여주느냐가 둘 사이의 가치판단의 기준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포르노도, 에로티시즘 영화도 사회적인 성의 인식들이 전환되지 않는 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포르노가 우리의 주제인만큼 포르노의 문제점을 알아내고 고치는 것에 우선해보자.

2) 광고와 포르노 - 상품화된 성을 중심으로

어떤 매체를 보더라도 성적인 것이 개입되지 않은 것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광고와 포르노는 둘 다 성적인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비슷한 점이 있을 것이다. 보다 적나라해진 성들을 보면서 포르노가 광고와 다른 점은 성기가 덜 드러나 있다는 것 정도가 아닐까 싶기도했다. 이 지점에서는 그러나 광고가 포르노보다는 에로티시즘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다른 점이 있다면 포르노가 성을 팔고 있다면 광고는 성을 도구로 여타의 물건들을 판다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이미 광고는 광고 자체로서 하나의 상품가치를 지니게 됨으로써 성적인 광고를 파는 것은, 곧 성을 파는 것이 되고 있다.

광고와 포르노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성의 상품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문제는 성의 상품화가 단지 상품화라는 이유만으로 사악한 것으로 판명될 수 있는가하는 점이었다. 기존의 가부장제적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자본주의에 대한 반발적 광고들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그 자체로 혹시 전복적인 가능성을 가질 수는 없을까? 라디오를 중심으로 이어폰들이 신나게 울려드는, 난자와 정자를 연상시키는 성적이라고 느껴지는 광고는 대체 어떻게 사악할 수 있을까?

따라서 성의 상품화란 - 포르노와 광고 모두에서 - 우선 정형화된 성적 모델들을 만들어 내고 이들을 대상화시켜 인간개개인을 무시해버린다는 점이 문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base에는 당연히 자본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포르노와 광고를 어떻게 전복의 무기로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생겼다.

3) 하이틴 로맨스

하이틴 로맨스는 여성들에게 성적인 것에 대한 환상(?)을 심어준다. 하이틴 로맨스가 주로 여성들에게만 유포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특히 포르노와 하이틴 로맨스가 주로 읽혀지기 시작하고 읽혀지는 중고등학생들의 직접적인 성적관계가 공식적인 인정 속에서 거의 이루어지기 힘든 우리의 현실을 보면 포르노를 중심으로 한 남성의 성에 대한 인식과 하이틴 로맨스를 중심으로 한 여성의 성에 대한 인식이 서로 엄청나 괴리를 조장할 것은 분명하다.

하이틴 로맨스 자체의 문제는 약간 논의인 듯 싶으므로 후에 더 생각해보기로 하자.

4. 포르노의 문제점들

1) 현재의 포르노 - 남근에 의한 여성의 대상화

① 남근의, 남근에 의한, 남근을 위한 문화(?)

현재의 포르노들은 남성들 사이에서 주로 생산, 유통, 소비된다. 특히 직접적인 성관계들이 어색한 우리나라에서 포르노는 남성들에게 왜곡된 역성적 이미지와 성적관계를 유포할 수 있다. 성애나 성적관계에 대한 각각의 사람들의 생각, 느낌은 매우 다를 수도 있을텐데 일률적인 성기 중심의 사고를 강요한다는 느낌이다. 성기 중심적 사고가 남성적 사고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확신을 못하겠다. 그러나 정자의 사출이라는 측면에서 성욕의 증폭을 통한 사출의 쾌감을 갖고 싶어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보류) 남성적 사고라기보다는 남근적 사고라고 해야할까?

② 처녀에게도 성욕이 있을 수 있다.

공식적인 세계속에서 지켜져야만하는 내 주변의 여성과 (오! 마리아 - 성행위 없이 잉태하신) 비공식적인 세계속에서 포르노에 존재하는 더러운(?) 여성들에 대한 이분법적 관점은 여

성의 성적 본능에 대한 남근중심적인 왜곡된 해석을 낳는다. 여성들은 그 관점에 따라서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아이가 되어야 하고 자신의 느낌들을 억눌러야만 한다. 혹은 자신의 느낌을 그대로 표출하기보다 남성의 도구가 되어줌으로써 자본주의 하에서 몸을 두 번 파는 일을 한다. 혹은 그 관점에서 벗어나려는 여성은 철저하게 비밀을 지켜야 한다. 이들은 모두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즐길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면 그들은 정숙한 아내와 이불속에서의 창녀 역을 연기해야 한다.

성적 정체성, 여성의 정체성이란 늘 남성의 부정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나 자신도 나의 성적 정체성을 투명하게 느낄 수가 없고 극단적으로 정체성이라는 것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한 부담이 된다고 느껴질 때가 많다. '창녀촌에 가지 말고 내 옆의 여성에게 sex를 제안하라!'고 외치기에는 두려운 것이 너무도 많다. 그녀가 정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고, 원하는 대로 대답할 수 있으며, 강요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을까?

2) 재현된 성에

인간은 제각기 다 다르다. 인간은 다 똑같다라고 하는 이는 패배적이고 타인을 자신과 똑같이 못한 같은 인간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이이다. 인간은 제각기 하나의 세상이다. 성애의 표현 방식도 각각 다를 수 있고 혹은 같아도 좋지만 모든 인간은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표현에 대한 감각을, 감정을 느낀다.

포르노는 성애를, 성교를 재현한 것일 뿐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포르노를 보면서 스스로의 상상력을 차단당하고 정해진 모델가운데 선택하는 형식을 갖게 되었다. 포르노는 성을, 사실은 존재하지 않을 지도 모르는 성을 실제보다 더욱 실제적인 것으로 만든다. 누구도 그런 성만을 갖을 수는 없음에도, 포르노 속에서 나체는 아무런 의미도 갖지않는 기호에 불과하다. 어떤 상징성도 갖지 않는다. 그저 욕망의 대상이다.

5. 포르노의 무엇이 문제인가

포르노 자체의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보다는 여성이 배제, 대상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성이 상품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발견되는 문제점들이 중첩되어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도 포르노 자체에 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포르노이거나 아닌 다른 여성적 여성성의 재현의 수단이 나타난다면 그것이 진정한 여성성일까? 지금의 포르노는 남성성의 진정한 재현일까? 재현은 진정하다해도 재현에 불과하다. 보다 더 완벽한 성의 재현은 '보다 완벽한 재현'에 불과하지 않을까?

나는 여성이다. 세미나 중 한 남자 후배가 "나쁜 건 알겠는데 보고 싶은 걸 어찌란 말이야." 라는 말을 우스개소리처럼 툭 던졌다. 그런지도 모르겠다. 대다수 남자들의 혹은 소수 여성들의 성적욕망을 채워주는 도구일 수 있겠다. 그래도 나는 포르노가 두렵다.

남성과 여성으로서의 대립구조 속에서 여성의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또다른 억압을 만들어낼 뿐이다. 개개인의,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능동적으로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그 작업에 꼭 어떤 모델들이 제시되어야할까? 포르노를 보는 것이 그저 현실일뿐일까?

포르노의 이데올로기

한양대 여성위원회 연구위원 94 김래영

포르노에 대해 처음으로 관심을 가졌던 건 대학에 와서 동아리의 첫 영화제를 준비할 때였다. 에로티시즘 영화에 대해 분석을 하던 세미나 시간에 머뭇거리며 자신이 본 포르노 이야기를 꺼내는 동기들의 모습을 보며 그때까지 영화를 좋아한다는 하나만으로 끝없는 동질감을 느끼고 동기 사랑이 나라 사랑이라고 외치고 다니던 나는 처음으로 그들과 나와의 사이에 놓인 큰 벽을 느꼈다. 포르노에 대한 관심도 호기심도 없던 여중고 시절을 보낸 나와 그들이 다른 문화를 향유해 왔구나하는 충격은 나도 포르노를 꼭 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만들었다. 며칠후 통신을 통해 어렵게 구한 포르노를 드디어 나도 본다고 동아리 사람 모두에게 자랑하고 나서 뭔가 대단한 것이 있으리라는 기대를 안고 보게 되었는데... 그때의 나의 눈에는 성적 도구로서 이용당하고 고통받는, 인격까지 박탈 당한 여성의 모습이 충격으로 다가왔고 더군다나 그러한 상태를 즐기는 듯한 그녀의 모습이 혐오스럽기 까지 했다.

그후 포르노라는 단어만 들어도 나는 뭔가 모를 분노감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성이란 뭔가 폭력적이고 음흉한것이라는 고정관념이 나를 지배하게 되었다. 동시에 페미니즘에 대한 나의 관점은 여성은 피해자이고 남성은 그걸 즐기는 폭군들이라는 피해망상적인 면에서 출발해 이세상이 잘못 돌아가는 것은 남성들이 주도하기 때문이라는 급진적인 경향까지 갖게 되었다.

이러한 생각은 드윌킨 박사의 '포르노그래피'라는 책을 접했을 때 좀더 구체화 되었다.

포르노그래피는 여성의 몸과 정신에 대한 조직화된 파괴 행위이며, 강간, 구타, 근친상간, 매춘은 포르노그래피와 서로 활발히 연계되어 있다. 포르노그래피의 특징은 비인간화와 새디즘이다. 그것은 여성에게 선포하는 전쟁이며, 인간의 존엄이나 자아 그리고 인간적 가치에 대한 끝없는 공격이다. 포르노그래피가 여성을 구속하고 있고, 여성의 몸의 부분을 여성 자체로 깎아내리며, 남성의 우월성을 구현하는 이데올로기이다.

이런 관점에서 포르노에 대하여 보면 이를 처음 접하는 중이 남자 중고등학생이란 점에서 이들의 여성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가장 앞섰다. 포르노는 이론이고 강간은 그 실천이었는데 이들이 여자는 자기가 원할때 아무렇게나 욕망을 이루는 대상이 될 수 있고 여성도 속으로는 그걸 바란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포르노는 정말 성문화에 있어서 하나의 독충같은 존재라 생각이 됐다. '이 험한 세상을 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나'하는 걱정도 앞섰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여러 사람들과 공개적으로 포르노에 대해 이야기 하고 나서는 조금 시각이 달라졌다. 포르노는 도덕적인 사람들의 배출구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점(진짜 나쁜 사람은 포르노를 보기 보다는 직접 실행한다는 생각은 진짜 못해봤다)과 세상이 험하고 남자는 다 늑대라는 나의 생각은 부분으로 전체를 평가하는 나의 오류였다는 점, 여자는 일방적으로 피해자일 뿐이라는 생각은 여성의 성욕을 무시한 '순결 이데올로기'의 부산물이라는 점등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솔직히 지금 당장은 포르노가 없어져야 한다, 필요악이라고 단정짓지 못하겠다. 다만 그속에서 표현되는 여성들의 모습이 좀더 현실적이고 동등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여성이 배제된 문화라는 점도 고쳐쳐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우리 주변에는 성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어 상처를 받는 많은 여성들도 존재하니까.

포르노가 세상의 성에 대한 관념을 다 지배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포르노를 바꿈으로써 굴절된 성의 모습들을 바꿀수는 있을 것이다. 일부만이라도 말이다.

서울대

대학사회의 성, 성폭력

성폭력 연구소 전임연구원 변 혜정

자연대 성방 백 성인

사범대 성정치모임 대표 김 지연

21세기 진보연합 성정치국장 박 진석

학내성폭력에 대해서 고민해봅시다.

-예방과 대책

성폭력연구소 전임연구원 변혜정

1. 학내성폭력 실태

2. 성폭력에 얽힌 통념 비판하기

- 강간만이 성폭력이다.
- 강간은 성관계이다.
- 부부간에 강간이란 있을 수 없다.

<피해자>

- 젊은 여자에게만 일어난다.
- 여성들의 노출(피해자 비난논리)
-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
- 여성들이 스스로 조심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가해자>

- 억제할 수 없는 남성의 성충동 때문에 일어나므로 예방하기가 힘들다.
- 낮선사람만이 성폭력 가해자이다.
- 정신이상자이다.

3. 생각할 문제

1) 피해자 비난논리 : 성폭력에 얽힌 통념 중 하나가 여성의 야한 옷차림 등 피해자가 잘못이라고 하는 피해자 비난 논리가 있다. 동시에 여성들의 스스로 연동조심, 시간제약 등을 성폭력 문제의 해결책이라 할때 이를 여성 억압으로 인식한 적은 없는가? 억압이라 할지라도 성폭력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성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제약을 감수해야 한다는데 ... 이는 우리 사회의 남성중심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2) 성관계에 대한 문제제기 : 성폭력은 성관계인가?

단순히 성기접촉만을 성관계로 본다면 성폭력도 성관계로 볼 수 있으나 성폭력은 절대로 성관계는 아니다. 왜냐하면 성관계란 성관계란 사랑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것으로서 성기삽입 이외에 몸의 언어를 사용하여 사랑에 도움을 주는 것들이다. 사랑한다는 눈빛, 손잡기, 부드러운 접촉, 입맞춤, 보듬어 안기 등 뿐 아니라 독특한 그 둘만의 몸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이성간의 관계를 더 돈독히 유지하려면 그 둘은 더 많이 자기만의 몸의 언어를 개발해야 한다. 또한 성관계가 즐거운 일이 되기 위해서는 성관계에서의 각각의 몸의 생리적인 변화도 알아야 하며 성이 출산의 기능, 쾌락의 기능, 휴식의 기능, 대화의 기능 등 여러 목적을 가졌다는 것도 알고 배워야 한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출산이나 쾌락으로만 성을 생각하는 것, 성기접촉만을 성관계로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이는 단적으로 우리 사회의 성기중심적인 성

문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3)성폭력 피해여성은 더러워진 여자이다 : 가부장적 사회에서의 여성통제인 순결이데올로기 때문인데도 여성들은 극복하기 어렵다.

가부장제 유지를 위해서는 남성의 입장에서 자기 여자의 성은 통제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는 모든 남자와의 압록된 약속이었다. 특정한 아이에 대한 남성의 권리 주장을 위해서는 다른 관계들의 배제가 필요한 것이다. 남성들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자신의 여자 이외에는 타인의 여자를 건드리지 않는 신체의 접촉의 기회를 서로 제한했으며 여자들에게 끊임없이 다른 남자를 만나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동시에 부권을 사회적으로 정의하며 확립하기 위해 여러제도를 창출해야 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표현되는 남근 중심의 법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정절과 남성들간의 협력에 의한 사회적지지체계가 없으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부권은 생물학적인 관계가 아니고 아이에 대한 사회적인 권리인 것이다. 이렇게 원시시대부터 통제된 여성의 성은 역사적으로 가부장제를 기반으로 결혼과 가족제도에서 더욱 억압된다. 남성의 상속권과 가문의 계승을 위한 생식의 성이 강조되며 혈통의 순수성은 더욱 중요하게 여기게 되어 여성의 순결과 정절은 절대적일 수 밖에 없다. 반면에 남성에게는 외도, 출산과 같은 혼외의 성관계를 할 수 있는 특권이 허용된다. 이렇게 부계와 부권을 토대로 한 가족관계는 남녀간의 관계가 평등하지 않음을 나타내며 남녀간의 성적 결합을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되게 한다. 남성은 여성의 성을 소유하고 통제함으로써 여성의 성적 자율권을 박탈해 버린 것이다. 이처럼 성관계는 남녀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내포하기 때문에 가부장제에서의 성은 동등한 인격체로서 남녀가 교류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결국 순결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남성의 성적 소유권을 지켜준다는 것인데 성폭력 피해여성도 이와 같은 순결이데올로기의 피해자이다. 성폭력을 성관계로 생각하고 원하지 않는 성관계일지라도 이미 자신의 몸은 순결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남자의 성기가 내몸에 들어왔기 때문에) 더러워졌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성폭력 당한 것을 성관계를 했다고 생각해서 순결을 잃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여성은 '남성이 주체고 자신은 객체'라고 생각하는 정말로 우매한 여성이다. 성폭력은 성기에 대한 기분 나쁜 폭력일 뿐이다.

4)남자들에 대해서

- 권력행사/지배욕구 : 성교는 남성성의 확인이다
- 공격성 : 강간환상/포르노 탐닉
- 성과 사랑 분리 : 상대여자를 대상화/성관계는 전인적인 경험인데도 불구하고 상대여성의 성기만 도구적으로 사용하는 분열된 경험을 하고 있다.
- 성기 지향성-발기된 성기 집착/남근은 무기/크기 콤플렉스
- 여성의 성적대상화/이분화
- 사물화 : 여성의 신체일부분에서 성적만족을 충족:하이힐 신기/몸매가꾸기.....
- 통제불가능성 : 남성들의 억제할 수 없는 성충동
- 남성들의 성욕 : 정상(하루에 6번 이상 발기)과 비정상의 기준이 올바른가?
- 개인차고려/표현(행동표출)은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 아래에 달려 있는 슬픈 것들에 대해 : 남성억압
- 여성에게도 성욕은 존재

5)페락주의와 금욕주의는 양극단이지만 성의 소외라는 같은 문제를 양산하는데.....

엄격한 도덕성에 의해 억압되는 성-성에 대한 죄의식/출산의 도구로 생각
성적으로 무한히 허용되는 성-성의 소외로 해석되기 보다는 성해방 또는 성을 통한 자아실현으로 생각됨

5. 성폭력이란

1)여성들의 삶의 현장 : 성폭력을 당해도 주위사람이 알까봐 쉬쉬하면서 신고하지 못하는, 집안의 아는 사람이 가해자라도 갈곳이 없어서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여성의 현실을 아는가?

2)성폭력은 우리사회의 성문화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3)성폭력은 권력관계의 표상이다.

(1)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성폭력²⁾

필자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성폭력'이라는 말은 잘 쓰이지 않았다. 단지 '강간'이라는 말이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그 당시 그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다. 주변에 누가 있나 없나를 살펴본 후 아주 은밀하게 말할 수 있었다. 말해서는 안되는 것을 말할 때의 느낌으로 은밀함과 동시에 굉장히 창피한 그 무엇이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성폭력에 대한 주변의 관심과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성폭력을 바라보는 시각은 변하고 있다. '성폭력'이라는 단어가 많은 사람들이 의해 알려지기 시작했고 강간보다 넓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이 오해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1) 우리는 성폭력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① 성폭력이란

학생과의 토론 중에 '이 수업을 듣는 학생 중에 성폭력 당한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남학생들은 호기심에 두리번거리고 여학생들은 고개를 숙인채 어떤 누구도 손을 들지 않았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모르는 사람에 의한 추행이나 강간만을 성폭력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혹시 그런 일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여기서 밝히는 것은 자신의 치부를 들어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폭력은 강도 강간³⁾ 뿐만 아니라 추행, 성적 희롱,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행, 윤간, 아내강간 등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즉 성을 매개로 여성의 의사에 반해서 생긴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은 다 성폭력인 것이다. 그러므

2) 이 글은 학생들의 경험을 듣고, 생각하고, 토론한 결과를 정리했다기보다는 필자가 알고 있는 사례에 근거해서 주로 보고식으로 서술했다. 다른 주제와는 달리 성폭력에 관련된 강의도 역시 보고식으로 수행했었다. 아래의 글의 사례들은 필자가 1992년 1월 ~1995년 12월까지 상담소에 근무하면서 느끼고, 듣고, 상담한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사례들이다.

3) 일반적으로 성폭력이라 인식되는 강도강간의 경우 78 ~ 87년 사이 5.5배 증가했으며, 1980년 이래 매해 5천여건이 발생한다고 집계되고 있다. 또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보고(1990)에 의하면 강간 신고율은 2.2%밖에 안되지만 실제로 매년 25만여 건의 강간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로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뿐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 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성폭력에 대한 정의로 미루어 볼 때 강간외의 여성을 괴롭히는 추행, 직장내에서 쉽게 발생하는 성희롱, 술자리에서 쉽게 이야기되는 성적인 농담 등이 얼마나 많은지는 가히 상상할 만하다. 만원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여자들끼리 여행을 간다거나 밤길을 겁내지 않고 다닌다는 것은 이제는 먼 옛날의 이야기가 되었다.

② 성폭력에 관한 기존 통념 깨기

자신과 성폭력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나에게는 성폭력이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겠지'라는 믿음으로 성폭력이라는 것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요즘 많이 호소되는 음란전화에의 노출로도 성폭력이라는 것이 어느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아무 일도 아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한번 음란전화를 받아 본 사람이면 '기본 망쳤다'에서 '손에 일이 안잡힌다'는 호소를 많이 한다. '재수 없다'라는 반응으로만 대처할 수 없을 정도로 음란 전화의 피해는 심각하다. 이렇게 여성들은 쉽게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한번 이상은 피해 경험이 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폭력을 강도 강간같은 것만을 연상한다는 것, 나와는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문제이다.

성폭력은 젊은 여자에게만 일어난다. 그러나 나이에 관계 없다는 것이 여러 사례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사례에 의하면 만 4개월에서 부터 60세 할머니까지 모든 여자들은 피해자가 되고 있으며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7세 남자 아이가 이웃집 할아버지로부터 강제로 항문 성교를, 직장 여상사로부터 직장내의 위계를 기반으로 남자직원이 성희롱을 당하기도 한다. 물론 아직도 남자보다는 여자 피해자가 월등히 많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어린이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피해자 30% 이상이 어린이 피해자라는 사실은 성폭력이 권력관계의 표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재미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성폭력 가해자인 남성들에 대해서 많은 동정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남성의 억제 할 수 없는 성욕 때문이니 좀 이해를 바란다는 것이다. 아들이 성폭력 가해자인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사례) 우리 아들이 여름에 10시 쯤 공부하다가 집에 오는데 굴목에서 한 여자를 만났나봐. 여자 동행도 단정치 못하고 짧은 미니스커트에 소데나시를 입었네. 그 여자를 보자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그 여자를 만지게 되었는데 여자가 소리를 지르더래.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 여자의 핸드백을 가지고 뛰다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잡혔는데 너무 놀라 자신을 잡는 그 사람 팔을 물어 버렸지. 결국 추행 미수, 강도, 치상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우리 아들은 그럴 예가 아니야. 공부만 하는 아이이고 그날은 억수로 운이 나빠서 그렇게 되었지. 젊은 애가 그럴 수도 있잖아. 성폭력상담소가 주축이 되어 여자들 못 입는 것에 대해서 캠페인을 벌여야 할 것 같아."

'남자는 성욕을 억제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 때문에 성폭력이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성의 공격적인 성행동을 남성다운 행동이라고 묵인하거나 심지어 조장하는 사회 분위기에서 성폭력은 일어날 수 있다.

성폭력은 여자들의 야한 옷차림과 야한 언동이 문제가 되어 일어난다

남성들이 야한 옷차림을 했다고 성폭력을 당하는가? 여성의 옷차림, 야한 행동 운운은 여성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 하기 보다는 남성에 종속적인 부속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사회분위기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여성의 옷차림에서 성폭력의 원인을 찾는 것은 또 다른 인권 침해이다.

대부분의 성폭력이 모르는 사람에 의해 낯선 장소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여러 보고서에 의하면 아는 사람에 의한 강간이 전체의 80%를 차지한다고 한다. 데이트 상대나 애인, 선후배, 직장동료나 상사, 이웃집 아저씨, 아는 오빠에서부터 근친(아버지, 외삼촌, 오빠), 친인척(사촌 오빠, 형부, 삼촌, 고모부, 이모부)까지 아는 사람에 의한 강간이 많다는 것은 성폭력이 결코 중동적으로 은밀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전 계획에 의해 치밀하게 이루어 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아직도 성폭력에 대해 강의를 하다보면 공통적으로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도둑을 맞았다. 강도를 당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와는 달리 '강간을 당했다'의 의미에는 여자의 잘못이 느껴진다는 것이다. 가해자를 탓하기 보다는 피해자를 탓하면서 '피해자가 어떠한 사람이나'는 것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 이것은 주변인, 가해자 뿐 만 아니라 피해 당사자인 피해자도 수치심을 느끼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한다. 상담 전화를 받을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이 이것이다. 분명 자신이 당한 성폭력 사건임에도 피해자는 울면서 호소한다. '주변에게 말할 수 없다. 가해자를 벌하고는 싶지만 내 자신을 알리고 싶지 않다. 비밀을 지켜달라. 어떻게 방법이 없겠느냐?'

이와 같은 논리에 의하여 성폭력 피해자가 받는 손실은 엄청나다. 여성의 안전치 못한 행실로 강간이 일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여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되며 여성이 저항을 못했다는 것은 여자가 강간을 원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것은 강간을 폭력으로 보기 보다는 성관계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가해자는 물리적인 위협보다는 위계, 권위를 이용한 심리적 권위를 이용하며, 물리적 강제가 이용되는 경우에도 피해자는 놀라움과 충격으로 도저히 저항을 할 수 없었다고 하는 정황으로 보아 강간은 성관계가 아니라 성적인 행위를 매개로 한 '폭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저항여부를 따지는 것은 피해자의 '목숨과 같은 정조관'에 기초한 것으로 '여성이 저항하면 강간은 성립될 수 없다'라는 잘못된 통념에 기초한다. 그러나 강도가 들어왔거나 도둑이 들었을때 피해자 자신의 저항여부나 재산 소유 여부를 중요시 여기는가? 목숨을 걸고 왜 강도와 싸우지 않았냐고 하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성의 정조관을 내면화해서 그런지 이부분을 이해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 한다. '여성이 술을 안마시면 되지. 여자가 밤늦게까지 왜 남자와 있어?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왜 당해? 당할 것 같으면 목숨을 걸고 싸워야지? 왜 도망안가? 왜 소리 한번 못지르지?' 남자도 잘못이지만 여자 잘못도 있다고 생각한다. 여자만의 책임이라는 데서 남녀 책임을 같이 묻는 것으로 의식이 변화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성폭력이 여성의 인권침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들은 이야기 한다. '여성들이 자신의 몸을 지킬 수 밖에 없다고.'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요즘과 같이 여성의 성이 상품화 된 시대에는 여성이 자신의 몸을 지키는 것 그래서 호신술을 배우거나 남자를 항상 조심하거나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지 않거나 등등. 그러나 문제는 이상의 방법들이 최소한의 임시 방편일 뿐이지 적극적인 대책이 될 수

없는 것이다.

2) 왜 성폭력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강간이 한 인간에게 끼치는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는 '김부남 사건' 그리고 아무런 방어 능력을 가지지 못했던 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서부터 그 후 12년동안이나 의붓아버지에게 변태적 성폭행을 강요당해 오던 한 인간이 앞으로 계속 될 성폭행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김 보은, 김진관 사건'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다. 결과적으로 살인까지로도 나타날 수 있는 성폭력이 그렇게 오랫동안 어떻게 방치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신성하다는 가족내에서 근친에 의한 성폭력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행해질 수 있는 지 또한 성폭력은 단지 여성의 잘못된 행실로 일어나는 것이어서 성폭력 가해자를 용서할 어떠한 법도 없는지, 만약 우리 사회에 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다면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무서운 성폭력의 현실속에서 법에 호소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침묵, 해결하고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

우리사회의 성문화

우리 사회에서는 남성은 힘과 용기를 덕목으로 출세를 최고의 목표로 삼으면서 생계부양자가 된다. 한편 여성은 아름다운 외모와 순종을 최고의 덕목으로 하고 결혼이 인생의 목표이며 가정일을 우선적으로 하는 의존자가 된다. 이러한 남성과 여성은 지배와 복종의 관계를 갖게 되며 이것은 성관계에도 그대로 연결되고 있다. 여성은 성적인 대상으로, 남성은 성폭행을 했을 지라도 용기있는 남성다운 남자로 여겨지며 남자라면 한번 성폭행을 해볼 수 있다라는 사회분위에서 남성의 성폭행은 부추겨지게 된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향락 퇴폐문화와 함께 더더욱 조장된다.

우리 사회의 향락 퇴폐업소는 45만개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향락문화는 성의 상품화와 맞물려 퇴폐적, 향락적, 폭력적인 성행위와 성폭력을 부추기는 것이다. 제대로 성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남녀의 이중적인 성규범을 그대로 내면화하게 되고 성의 상품화와 함께 성폭력이라는 것은 남자들 사이에서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 것이다.

성폭력관련법에서의 문제

강간을 '정조에 관한 법'이라는 제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제까지의 성폭력 관련법도 성폭력을 부추기는 한 요인이다. 성폭력의 문제는 정조의 문제가 아니라 폭력의 문제임에도 정조 여부를 언급함으로써 피해자가 성폭력을 성관계로 인식하게 만든다. 그러나 엄연히 성폭력은 피해자가 정조를 잃은 것이 아니라 폭력 범죄의 피해를 당한 것이다(그러나 새롭게 제정된 성폭력 특별법에서도 이 부분은 수정되지 않고 있다).

강도 강간과 집단 성폭행, 운간, 성폭력가해자가 친족이거나 장애자가 성폭력 피해자일 때를 제외하고는 성폭력은 아직까지도 친고죄이다. 제 3자가 신고 할 수 없고 피해자 당사자만 신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대부분의 남자들은 성폭력이야 운이 나빠서 당한 것인데 이렇게 본인만이 신고 할 수 있으므로 여성들이 수치심과 피해를 삭감시킬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한다. 일면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만 이것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성문화 일반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남자는 자유로운 성, 여자는 정절, 순결이라는 이중적

성윤리로 피해자 여성에게 죄책감과 수치심을 더욱 가중시켜 스스로 신고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피해자가 신고를 한다는 것은 '더럽혀진 여자'라는 주변의 눈총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친고죄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 사회의 성폭력 관련법이 여성을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진 인격체로 보기 보다는 성적인 대상으로만 보는 사회적 통념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낮은 강간 신고율, 효율적이지 않은 수사, 합의 유도, 낮은 기소율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또다시 성폭력을 부추기는 원인 제공을 하고 있다.

성폭력은 남성의 본능적인 성충동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성문화와 여성의 지위를 반영하는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현상이다. 성폭력에 관대하고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사회, 건강한 성문화가 형성되지 않는 사회에서 성폭력의 빈도는 높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성문화와 성폭력에 대한 인식, 그리고 성불평등의 상황을 중심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단순한 법개정이 아닌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이중적 성규범의 타파를 위하여 성의 상품화를 조장하는 향락 퇴폐 문화를 근절하고, 건강한 성문화를 수립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 동시에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남녀 불평등의 관계 개선을 위하여 우리 여성 모두는 하나의 목소리로 우리의 권리를 요구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만이 성폭력 근절과 대응방식은 사회적으로 폭넓게 강구될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할 문제>

1. 나는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얼마나 수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토론해보자
2. 내가 만약 성폭력을 당한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지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자
3.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성폭력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남성들이 오후 10시 이후에 다니면 경범죄로 처벌하겠다'라는 법규정이 만약 있다면 그 규정에 왜 잘못된 규정인지를 성폭력에 얽힌 통념을 활용하여 비판해보시오. 동시에 여성에게도 이법을 적용해보고 우리사회의 여성들이 얼마나 억압적인 사회에 살고 있는지 분석하시오.

(2) 직장내성희롱4)

저속한 농담, 음란하고 불쾌하기 짝이 없는 시선,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 부당한 서비스에 대한 요구... 우리들 대부분은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 다만 사소하고 그냥 대중 넘길 일인지, 아니면 기분이 나쁘기는 하지만 여자니까 참을 수 밖에 없는 일인지 곰곰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위와 같은 행위들이 '사소한 일', '직장생활의 윤활유', '친근감의 표현' 정도로 여겨지는 분위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미국의 여성운동단체나 여성학자들은 이미 1970년대 중반부터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을 '성희롱(sexual harassment)'이라 이름붙이고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시켰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93년에 기소된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을 계기로 직장여성들에게 성희롱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성희롱은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일어나는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로 정의된다. 성희롱이 일상적

4) 한국성폭력상담소, 직장내성희롱예방비디오 <건강한 여성, 자유로운 일터>.

1995년 홍보용팸플렛 참조

인 남녀관계나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친밀감의 표현과 다른 것은 그것이 '원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불쾌하고 위협적인 것으로 경험되는 인권 모독 행위라는 점이다.

(사례) 엘리베이터 안에서 버튼을 누르고 옆으로 비켜서더니 같은 부서 직원인 내가 가슴을 의도적으로 스쳐가면서 버튼을 누르더니 내 옆에 바짝 붙어서는 것이예요. 마치 연인과 같은 포즈로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 너무 불쾌했지만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어요.

성희롱은 일상생활의 장 어디에서 일어날 수 있지만, '직장' 안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은 남성과 여성, 상사와 부하라는 권력관계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것이다. 여기서 '직장'이라는 의미는 '공간적으로 직장 안에서'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직장을 매개로 한 인간관계, 그리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 성희롱은 한 개인의 고용에 대한 댓가나 조건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성적 행위에 대한 수용 또는 거부와 고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사례) 채용광고를 보고 정규직으로 알고 외국기업 한국지사에 입사했는데 채용 후 3개월 간을 임시직으로 일하라는 말에 수습기간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였지요. 그런데 지사장이 수차례 최근덕거리다가 어느날 나를 불러 '고참비서가 나가면 너를 비서로 해주겠다. 너를 좋아한다.'고 하며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성희롱을 뿌리치고 방을 나와버린 그날 오후 그로부터 회사를 그만두라는 통지를 받았지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예요.

또 고용과는 상관없이 일상적인 업무현장에서 또는 업무와의 연장선(회식, 야유회, 직장관련 사람과의 개인적 만남 등)에서 성희롱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위협적이고 불쾌한 업무환경 때문에 개인의 업무능률이 떨어지고 회사에 이르는 극단적 상황까지 발생하기도 한다.

(사례) 회식자리에서는 늘 모든 여성의 호스티스화가 이루어지곤 하지요. 직원들은 사복으로 갈아입느라고 조금 늦게 도착하게 되는데 회식자리에 가면 부장, 과장의 양 옆자리를 비워두었다가 직원들을 거기에 앉으라고 해요. 어떤 남직원들은 '미스O, 뭐 해. 부장님 술잔 비었잖아.'라며 직원들이 술병을 들고 다니며 남자직원들의 술을 따라주도록 시키면서 풍악풍과 같은 술자리 분위기를 만들어요.

위에서 살펴본 몇가지 사례에서도 나타나듯이 성희롱의 유형은 단지 바라보는 행위에서부터 강간직전의 행위까지 매우 다양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각적 행동(불쾌하고 음란한 시선, 성적인 제스처 등), 언어적 행동(외설적인 언급, 성적 암시, 저속한 농담 등), 육체적 행동(건드리기, 접촉, 애무, 포옹, 추행 등), 음란물의 전시나 낙서, 성적 봉사 요구(과도한 서비스나 애교의 요구, 술자리에서 서비스 요구 등)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직접적인 성적 행위는 아니지만 '여성임'을 전제하면서 여성을 비하하거나, 여성에게 불이익을 미치는 행위 등도 성희롱에 포함된다. 가령 외모나 옷에 대한 평가는 직접적으로 성적 행위는 아니지만, '여성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고 그러한 행위가 직장여성에게 불쾌한 느낌을 주거나 업무에 영향을 준다면, 성희롱으로 볼 수 있다.

(사례) '몸매가 뚱뚱하다'든가 '머리가 왜 그렇게 빨갛느냐?' '얼굴에 뭐가 그리 낫느냐?' '가슴이 볼륨있게 생겼다' '다리가 잘바졌다' 등 한번이라도 들어 보지 않는 사람을 엿을 거예요.

또는 명백히 성차별적인 발언("여자인 주제에...", "여자니까...")이나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욕설, 반말 등), 차대접이나 책상담기에 대한 요구, 결혼이나 임신, 출산으로 인한 부당한 대우 등도 '여성임'에 기반한 행위이므로 성희롱에 해당된다.

(사례) 평소 여직원들에게 '아, 너' 하거나 '이년, 저년, 못생긴년'의 모욕적인 욕설 뿐 아니라 평소 들어 보지도 못하는 불쾌한 욕설을 입에 달고 다니며 여직원들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는데 고소할 수 있을까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여성들이 할 일>

- ① 평소 싫고 좋은 것에 대한 의사표현을 분명히 한다.
- ② 자신의 언행이 공신력이 있도록 말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 ③ 음담패설에 끼어들어 동조하지 않는다.
- ④ 상사나 동료의 술을 따르거나 사이사이에 끼어앉으라고 강요하면 항의한다.
- ⑤ 귀가시 차편제공을 받을 때는 주의해서 타도록한다.
- ⑥ 상습적으로 부인과의 불화나 고독을 토로하며 접근하는 상사나 동료를 경계한다.
- ⑦ 여직원이 자주 바뀐 직장이라면 입사를 신중히 검토한다.
- ⑧ 회사에 성희롱 예방과 대응방안에 대한 사규제정을 건의한다.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남성들이 할 일>

- ① 음담패설이나 불쾌한 신체적 접촉 등의 성희롱을 하지 않는다.
- ② 자신의 행위가 성희롱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어려울 때는 내 가족이 똑같은 일을 당했을 때로 바꾸어 생각해본다.
- ③ 여성이 싫다고 하면 정말 싫은 것으로 받아들인다.
- ④ 여성이 말로 표현을 하지 않아도 불쾌한 표정, 자리를 피하는 등의 행동을 보일 때는 거부의 표시로 받아들이며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여성의 입장을 배려한다.
- ⑤ 성적인 표현을 자유자재로 하는 것이 남성다움이 아니다.
- ⑥ 여성을 성적인 대상이 아닌 대등한 동료, 인격체로 대한다.
- ⑦ 공사를 분명히 하여 자신의 직원들을 이용하여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지 않는다.
- ⑧ 성희롱없는 회사 분위기를 위해 노력한다.

<성희롱을 당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성희롱 행위를 한 가해자에게 분명하게 거부의사를 표현한다.
- ② 다른 직원들에게도 자신의 성희롱사실을 알려 공동대처한다.
- ③ 회사내의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사건진술과 증거자료를 모아서 제출하고, 가해자의 행동에 대한 시정과 처벌을 요구한다.
- ④ 증거자료는 법적 소송을 제기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안전한 곳에 보관한다.
- ⑤ 여성단체나 전문상담기관에 상담을 의뢰한다.

(3) 데이트 강간

데이트 강간이란 넓은 의미로는 아는 사람에 의한 강간을 뜻한다. 좁은 의미로는 성적인 친밀감(sexual intimacy)이 있는 상태에서 이성과의 계획된 만남속에서 일어나는 강간을 뜻한다. 상대를 정복하기 위하여 물리적인 힘이나 폭력, 협박 등을 사용하여 육체적으로 무력하거나 저항

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강간하거나 나중에 해를 입히겠다고 협박해서 여성의 동의없이 성관계(sexual intercourse)를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데이트 강간을 예방하기 위하여 남녀가 같이 노력해야 할 일이 있다.

< 데이트 강간을 막기 위해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 >

- ① 평소 자기주장을 분명히 하는 태도를 갖는다.
- ② 규칙적인 운동과 체력단련을 통해 힘과 자신감을 기르고 호신술을 익히는다.
- ③ 데이트 상대를 선택할 때는 다음과 같은 남자는 피하도록 한다.
 - 당신을 평등하게 대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모든 결정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남자.
 - 당신의 행동과 생활을 지배하려는 남자
 - 여성일반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남자
 - 소유욕과 질투심이 강하거나 신체적, 언어적으로 공격적인 남자
 - 술이나 약물을 지나치게 복용하거나, 그랬을 때 형편없는 행동을 하는 남자.
- ④ 상대를 잘 모르거나 친밀한 관계가 될 마음이 없을 때에는 그의 집에 가거나 그를 당신의 집에 초대하지 않는다.
- 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모르는 곳에 가서 데이트하지 않는다.
- ⑥ 첫 데이트 때는 상대의 차를 이용하지 않는다.
- ⑦ 성관계를 갖겠다는 결정없이 함께 숙박업소의 방을 이용하지 않는다.
- ⑧ 모든 데이트 비용을 상대가 지불해서 성관계를 거절하기 힘든 상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데이트 강간을 예방하기 위해서 남성들이 할 수 있는 일 >

- ① 다른 사람에게 성관계를 강요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아니오'는 거부 표시로 받아들인다. 이것은 성교 뿐 아니라 키스, 애무에도 모두 적용된다. 이전에 상대방이 동의해서 성관계를 가진 사이라도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② 당신과 당신 파트너의 욕구에 대해서 서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한다.
- ③ 압전히 있는 것을 동의한 것으로 혼동하지 않는다.
- ④ 당신이나, 당신 파트너 둘 중 누구라도 술에 취했을 때에는 성관계를 갖지 않는다.
- ⑤ 다른 남자들이 성차별적 농담을 하거나 여성을 무시하는 발언을 할 때 또는 여성을 이용하거나 학대할 때 이의를 제기한다.
- ⑥ 자신이 경험한 강간과 유사한 성관계의 횟수와 성경험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떠들어대는 남자들에게 문제를 제기한다.
- ⑦ 남성들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반응에 무신경하고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해내지 못하는 기존의 태도를 버려야 한다.
- ⑧ 강간을 정당화하는 태도에 문제를 제기한다. 많은 남자들이 특별한 상황-피해자가 술취한 경우, 야한 옷차림을 한 경우, 성적인 농담을 잘하는 경우 - 에서의 강간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강간을 합리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⑨ 그 어떤 것도 당신에게 성적인 행위를 할 권리를 부여하지는 못한다.

비싼 식사대접, 성적 흥분, 농도질은 애무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동적으로 성교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어떤 권위에 대한 복종이나 혹은 무엇에 대한 보상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⑩ 데이트 상대자로 관심이 없는 여성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 많은 여성들과의 대화를 통해 여성들이 남녀관계 속에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남성들과도 충분한 우정을 나눈다. 대개 남성들은 성적인 이야기는 농담으로나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성적 경험, 기대, 그리고 성적인 관계를 통해 맞본 좌절감 등에 대해 다른 남성들과 충분히 토의한다.

⑪ 강간의 실상과 원치 않는 성관계에 대해서 가능한 많이 알아둔다. 이러한 지식을 통해 당신 파트너의 욕구나, 다른 사람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 할 수 있게 된다.

⑫ 학교나 지역사회에 있는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친구들에게 그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권한다.

6. 성적 신체자기결정권을 갖기 위하여

첫째, 여성과 남성은 같은 성규범의 기준을 가져보는 것이다.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남녀 모두에게 평등한 성관계를 갖다주는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여성과 남성은 떨어져서 살 수 없으며 끊임없이 서로 섞이고 갈등하면서 공존하기 때문이다.

둘째,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정숙 또는 순결의 기준이 여성을 분리시킨다는 사실을 두 집단 모든 여성들이 인식하여 분리를 극복하는 자매애를 키워야 한다.

셋째, 남녀 모두 자신의 몸의 주인되기를 행사해보는 것이다. 여성은 남성에게 의존하고 남성에게 자신의 모든 인식과 태도를 굴절시킬 것이 아니라 남성과 함께 동시적인 주권의 행사자로서 스스로의 결정에 책임을 갖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남성은 자신이 이미 주인이라고 의식될 것이 아니라 분열적이고 조각난 쾌락과 편리함을 쫓아 다른 남성들을 맹목적으로 따라 하기 보다는 '서로서로에의 화합'을 위하여 여성의 노력을 지지하고 자신의 변화도 서둘러야 한다. 그러면 '성'이라는 것은 한 성이 다른 한 성을 소유하고 이용하는 것이 아닌 서로를 성장시키고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하는 진정한 의사소통방식이 될 것이다.

남만적 性의 환상, 그 脫신비화를 위하여

서울 대학교 사범대학
성정치 연구모임 '94 김지연

사춘기 때 우리는 성에 대한 온갖 호기심과 궁금증을 가두어 둔 채, 가려진 성의 은밀함 속에서 들려 오는 온갖 소문들을 낄낄대며 즐겼다. 그러면서 우리는 떠도는 그 소문들을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규정지어 놓고, 이중적 성윤리를 아주 자연스러우면서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온 지금은 미성년자 관람 불가 영화를 눈치 살피지 않고 당당하게 볼 수 있고 포르노나 에로물도 마음놓고 즐길 수 있으며 이성 교제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성은 여전히 은밀히 유통되어야 하는 금기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성은 개인적인 영역이고 따라서 합부로 침범해서는 안된다는 생각, 공개적으로 드러내어 말하기에 성은 너무 추하고 냄새난다는 생각이 성을 이중적인 존재로 만들어 버렸다. 쾌락 추구를 죄악시키는 보수적 성의식과 인간의 성본능을 중시하는 진보적 성의식 사이에서 갈등하고 방황하다가 마침내 성은 자아 분열을 일으켜 버린 것이다. 남자에게 있어 쾌락으로서의 성이 여자에게는 순결로서의 성이 된 현재의 성문화 속에서, 정복자의 입장에서 있는 남자의 성과 순종하는 입장에 선 여자의 성 사이의 간극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그로 인한 억압과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물론 남성의 경우 이중적 성 윤리로 인하여 자신에게 허용되는 성적 방종과 자유로움을 포기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자유도 사실은 차츰 성의 상품화가 불러온 인간 소외와 타락의 늪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정력 콤플렉스에 시달리는 남성 역시 왜곡된 성 이데올로기에 의한 피해자가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 하에 현재 대학인의 성 의식과 공개적인 성 담론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흔히들 성은 본능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말 역시 남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인 것 같다. 남성에게는 강한 정력의 과시가 곧 능력으로 대변되지만 여성은 성욕이 없는 것으로, 아니 없어야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대신에 여성에게는 순결하면서도 동시에 남성의 사랑을 얻기 위해 성적 매력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지상 최대의 과제로 부여된다. 이 때문에 정숙한 여자와 그렇지 못한 여자가 나뉘고 순결 이데올로기와 섹시함 사이에서 성의 신비는 극도로 부풀려진다.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 고려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남성은 여성에게 적당히 세련되고 매력 있으며 성적으로 자유로움을 원하면서도 자기만을 위해 순결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낮에는 정숙한 성녀를, 밤에는 섹시한 요부를" 원하는 이러한 이중적 잣대 속에서 여성은 스스로 성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남성을 위한 존재로, 타자로 머물 수밖에 없다.

또한 성이 본능이라는 견해에 따르자면, 원래 남성은 본능적으로 성적 충동이 강한데, 단정치 못한 여성의 야한 옷차림이 그 참을 수 없는 성욕을 자극하여 성범죄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늑대 같은 남성의 성욕으로부터 연약한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남성=가해자/ 여성=피해자라는 동식을 세워 놓고 남성의 성욕은 어쩔 수 없는 본능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여자가 알아서 조심하고 피해야 하는데 남성의 참을 수 없는 성욕을 자극했다는 식의 책임 전가가 아닌가. 성은 이성으로 통제할 수 없는 충동의 영역이며 본능이라는 통념은 우리 사회의 수많은 성 문제들, 강간, 매매춘, 외도를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물과 달리 인간은 종족 번식을 위한 본능적인 발정기가 따로 없으며 인간의 성행위는 의식주와 마찬가지로 역사적·사회적 과정을 거치는 문화적 표현물일 뿐이다. 남녀의 성은 생물학적으로 다르든지 성은 개인적인 것이라는 신화를 깨고 그 속에 담겨 있는 사회성에 눈을 돌려보자. 성의식을 왜곡시키는 사회적 기제에 대해 생각해 보자. 성행위는 남근 중심주의와 그로 인한 남녀의 분리, 가족의 제도화 등을 통해 훨씬 더 정치와 권력 재생산에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개인의 다양한 인간적 특질들을 남성/여성으로 구분 지어 호명하는 과정은 이데올로기적 과정이자, 정치적 과정이며 권력의 재생산인 것이다.

성의 억압과 통제는 그 음성적인 성욕 해결 방식으로 매매춘과 섹스 산업의 성장, 성의 상품화와 성폭력을 불러 왔다. 당신은 애인의 순결을 지켜 주기 위해 매춘부를 샀다는 남성을 이해할 수 있는가? 행실이 단정치 못한 여자는 좀 건드려도 켄찮다는 논리에 동의할 수 있는가? 포르노의 시청이 시뮬레이션 효과에 의해 성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는 성범죄를 일으키도록 호명한다는 주장- "포르노는 이론이요, 강간은 실천이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본주의 성문화에서 일어나는 성의 상품화는 이미지의 포장술 통해 성의식의 신비화를 조장하고 남성성과 여성성의 분리 의식을 통해 그것을 유지한다. 혹자는 가족 제도의 폐지와 완전한 성의 상품화를 통해 프리 섹스를 이룩하는 것이야말로 보수적 도덕주의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며 매매춘이야말로 진보적 성의식의 담지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매춘부는, 혼전 성관계를 부인하고 엄격한 일부일처제를 유지하면서 비릇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희생양이며 성에 있어서 자본주의 인간 소외의 극한이다. 그렇다면 성은 과연 개방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더욱 은밀해져야 하는가? 성을 개방한다면 어디까지 그리고 어느 연령까지 허용해야 하는가? 차라리 남성에게도 성의 남만성을 요구하는 것은 어떨까?

2년 전 관악인을 대상으로 성경험과 성의식을 조사한 자료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혼전 성관계는 이미 우리에게 개방되어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 문제는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허덕이는 성을 어떻게 공개적으로 담지해 내고 우리 나름의 성문화를 주체적으로 만들어 나가느냐일 것이다. 지금까지 남근 중심주의, 순결 이데올로기와 성의 신비화, 성의 상품화, 성을 둘러싼 자본과 권력의 이데올로기 등 많은 이야기를 단숨에 토해 낸 듯하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인지 능력 부족인지 글을 일관되고 논리 정연하게 쓰지는 못했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면당하고 관심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던 대학인의 성문화에 대해 짧은 소견이나마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면서 솔직하고 당당하게 우리 자신의 성의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으면 하는 작은 바람으로 양해해 주었으면 한다.

성=폭력, 그것으로부터의 탈출

서울대학교 자연대 성방

백성인

신세대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 하나.

性에 있어 개방적일 것. 즉, 혼전성관계는 필수이고 누구와도 마음만 맞다면 Sex를 즐길 수 있다. 혼전성관계는 절대불가라고 외치는 고리타분한 선세대들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그들의 주장. 性은 자유롭게 즐기는 거라나....

"억압되었던 성욕을 마음껏 표출시켜라. 섹시함은 최대의 매력이다."

요즘 가장 잘 팔리는 광고문구들의 핵심이 아닐까?

이것은 이제 결코 TV나 영화에만 등장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80년대와는 달리 90년대의 대학사회는 바깥 사회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그동안 간혀 있었던 性이 자유로이 캠퍼스를 활보하고 다니는 듯하다. 그러나 그 화려한 겉포장을 떼어보면 그것은 우리들의 착각이었음이 드러나게 된다. 실제로 학내를 돌아 다니는 것은 수많은 성담론서들과 전보임을 외치기 위해 필요한 장식물로서의 性이었을 뿐이다. 실제 개개인과 관련된 性은 여전히 사적인 공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술자리나 M.T.에서 간간히 얼굴을 드러낼 뿐이다. 그런데 간간히 드러나는 그들의 얼굴은 또 어떤 모습인가? 나는 당신에게 그것을 폭력이라 말한다.

누군가가 상대방을 두들겨패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폭력이라고 부르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에 따라 붙는 그 집요한 남성의 시선을, 술자리에서 이성간의 선후배 사이에서 일어나는 신체접촉을 폭력이라 부른다면 분명 거센 반발이 있을 것이다. 일단 전자의 경우는 그들 사이에 어떠한 권력관계가 형성된 것도 아니고 직접적인 행위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들을 할 것이다. (보는 것도 죄나라고 하며 입을 쉴룩거리는 당신의 모습이 보이는군.) 후자의 경우는 술에 의한 의식의 약해짐을, 또는 대부분의 경우 친근감의 표시일뿐 폭력적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들어 반발을 할지도 모르겠다. (피해자는 한마디도 할 기회를 안주는군.) 그럼 한 번 생각해 보자. 먼저 전자의 경우에서 여성의 다리를 쫓아다니는 그 시선에는 이미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남성과 여성의 전형만이 남아있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 상대 여성은 상대적으로 열등한 '여성'이라는 이미지의 재현물일 뿐이다. 그의 시선속에서, 그리고 아무말 못하고 얼굴을 붉히며 지나가는 여성의 머리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자와 발가벗겨지는 자로서의 권력관계가 형성되고 한 사람은 쾌락감을, 한 사람은 모욕감을 느껴야 하는 것이다. 당신의 반발과는 달리 그들 사이에는 이미 사회적으로 구조화

된 권력관계가 형성되어있고 한편에서는 충분히 그것을 폭력으로 느끼게 된다. 다음으로 후자의 경우 먼저 술에 취한 당신은 당신이 아니냐고 묻고 싶다. 그것은 결국 당신 안에 내재된 의식일 뿐이지 않느냐고. 또한 분명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일인데도 어느 한편의 입장만이 이야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느낌과 그에 대한 반발은 이미 형성된 선후배라는 그들 사이의 권력관계속에 묻혀버리고 만다.

성폭력, 폭력적 성관계. 바로 내가 당신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 그것이다. 너무도 철저하게 우리의 머리속에 박혀있는 의미들로 인해 우리는 그것을 폭력으로 보지 못하고 있었다. '성개방'이라는 매혹적인 단어와 함께 들리는 모욕과 불안, 상실의 작은 외침들. 그러나 한편에서는 폭력을 보지 못하는 소경들의 웃음 소리들. 당신과 내가 있는 이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性은 바로 그러한 것이다.

벗어나보려는 많은 몸부림이 있어왔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 인간을 단죄하느라 지치고, 막연하게 바뀌어야 한다고만 외치는 자보 쓰느라 힘빠지고, 어려운 학자들의 말만을 인용하다 결국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사건은 지워져 가고..... 여전히 주위에선 계속해서 성희롱 사건에 대한 풍문들이 떠돌고 술자리에서의 음담패설은 그칠 줄 모르고, 주위의 시선에 불안해 해야만 한다. 더 이상 지친 채 살아갈순 없다. 또 다른 시도가 필요하다. 먼저 당신에게 "성은 곧 관계이다." 라는 명제를 던진다. 이제 당신이 나에게 말할 차례다.

두런 두런 나누는 성이야기, 피임법..

--뿌리내림 기획단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96 조연희

성교육이란 걸 받아본 적 있는가?

손에 손으로 전해지는 빨간 책이나 비디오, 조숙한 또래 아이들의 경험담... 이런 비공식적 통로가 아닌, 공개적인 장소에서 몇몇한 하나의 성을 가진 인간으로 자신의 성(sexuality)을 깨달아 본적이 있는가?

요즈음 성교육이 점차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학마다 성교육강좌가 등장하고는 있지만 아직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우리는 공개적인 '성지식 나누기' 한판을 기획해보았다. 여기서는 '피임법'을 중심으로 이야기 되어질 것이다.

여성의 생식기관은 복강 내부에 위치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여성의 피임법에는 기구 삽입식이 많고 경구용 피임약의 경우에는 매일 복용해야한다. 이런 피임법들에서는 부작용도 종종 발견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은 남성이 피임법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흔히 피임은 여성이 알아서 하는 것으로 여성과 남성 모두 인식해왔었고 따라서 함께 하는 성행위임에도 남성은 피임법에 대해 무관심, 무지한 편이었다.

피임법을 비롯한 성의학은 인간의 신체(주로 여성)와 성을 대상화하는 근대적 성지식의 고안물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포럼의 준비과정에서 조사되었던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성의식과 그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열악한 성지식"에 대한 문제의식은 강연식이 아닌 함께 해보는 시연식의 피임법 강좌를 마련하게 하였다. 혼전순결관에 대한 개방적 사고와 "안해봐서 모르겠다", "여성도 피임이란 걸 하느냐"라는 피임법에 대한 무지가 파생할 결과는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기능적인 피임법 강의를 지양한다. 일방적인 주입식이 아니라 함께시연해보고 이야기하면서 여성의 전유물로 잘못 생각되어왔던 피임법에 대해, 그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피임법은 보통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나뉘어 진다.

◆ 남성용

콘돔

콘돔은 얇은 고무 꼬투리로 약 18cm 길이의 자루 형태를 이루고 있다. 발기된 성기를 밀착해서 싸며 사정된 정액이 자루의 끝에 저장되게 함으로써 수정을 막는다.

콘돔은 감아진 채 포장 속에 들어 있는데 이것을 성교 직전 발기된 성기 끝에 대고 풀어올리면서 감싼다. 사정후 정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장치해 놓은 콘돔 끝의 작은 주머니에 공기가 들어가면 찢어지기 쉽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콘돔 착용시 끝 주머니 부분을 손으로 비틀어 공기를 뺀후 납작하게 한 상태에서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며 착용하여야 한다. 또 주의할 사항은 콘돔 착용은 반드시 삽입하기 전에 해야한다는 원칙이다. 즉, 성기가 발기한 직후 바로 콘돔을 사용하고 성관계를 하여야 한다. 사정 후에는 발기력이 없어지기 전에 남성이 페니스를 질에서 빼내야 한다. 빼내는 동안에 콘돔이 벗겨지지 않도록 위쪽을 누른다.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살정제와 병용하면 피임효과가 두드러진다.



① 끝을 가볍게 비틀어서 공기를 뺀다.



② 발기한 성기에 끼운다.



③ 말려 있는 부분을 병균병균 돌려서 끝까지 내린다.

질외사정법

남성이 오르가즘 직전에 페니스를 질에서 빼내어 정액을 여성의 질 밖으로 사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단 남성의 성기가 발기하면 사정을 하지 않은 상태라 해도 소량의 정액이 조금씩 배출되기 때문에 피임 효과는 크지 않다. 또한 순간적으로 질외사정을 못하고 바로 전에 사정함으로써 실패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피임 실패율이 20-35%로 꽤 높은 편이다.

이 방법을 실행할 경우 남성에 있어서 조루와 같은 성기능 장애가 흔히 나타나기도 하며 여성에 있어서도 어떤 성적 기능장애가 올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남성피임약

아직 생소하고 낯선 용어이지만 많은 학자들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다. 아직 실험단계에 있고 실용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 종류가 다양하게 연구 중에 있다. 한 예로 남성의 일시적 불임을 유발시키는 남성 피임약이 있다. 처음으로 중국에서 발견된 것인데 목화씨에서 추출한 고시폴이라는 물질로서 이를 복용하면 무정자증을 유발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 약을 중단하면 다시 임신할 수 있다.

정관수술

간단하고 안전한 외과수술로 정관-정소에서 페니스로 이어지는 통로-를 절단하거나 묶는 방법이다. 정관 절제술에 있어서는 국부 마취만으로 충분하며 음낭 위나 가까운 곳을 1~2개소 작게 절제하고 정관을 1cm정도 절단하여 양단을 잡아맨 후 주위 조직을 메운다. 수술 후 곧 활동해도 좋고 7일~10일 정도는 성관계를 피하는 것이 좋다. 영구 불임술로서 알려진 것이지만 후에 정관복원술을 하기도 한다. 여성이 영구적 피임수술을 받은 후 복원수술을 했을 때에 비해 남성의 정관복원술은 성공률도 2배 이상 높고 경제적으로도 여성의 복원술에 비해 적은 수술 비용이 든다.

정관 수술 후 주의할 점은 그동안 만들어진 정자가 묶고 잘려진 바깥에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성관계를 가질 때 적어도 10정도는 다른 피임법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여성용

월경주기법

오기노(Ogino)법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배란일을 전후하여 임신이 가능한 날짜를 피하여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즉 배란일의 전, 후 5일 내지 7일을 임신가능시기로 보는데 개인차가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본인의 월경주기를 정확하게 알고 관찰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유일한 자연피임법이기에 때문에 로마카톨릭교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유일한 피임법이다.

정자의 수명은 사정후 72시간 정도, 드물지만 때로는 7일까지도 살아 있을 수 있다. 난자는 배란후 24~48시간 정도까지 수정이 가능하므로, 배란일을 앞으로 있을 월경의 첫날부터 거꾸로 14일 전이라 할때 정자와 난자의 수정가능시기를 조합해 보면 짧게는 배란 전후로 합하여 10일, 길게는 전, 후 각각 일주일로 임신가능기간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배란일이 다음번 월경 첫날부터 계산하여 꼭 14일 전이라고 정확히 예측하기는 불가능하므로 더욱 과학적인 배란 측정의 방법으로 기초체온법이나 질점액측정법을 병행할 수 있다.

기초체온측정법(Basal Body Temperature : BBT)은 여성의 기초체온이 달마다 호르몬 변화에 의해 미묘히 변하는 것을 근거로 배란시기를 근접하게 알고자 하는 것이다.

기초체온은 체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없는 때, 즉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측정하는 체온을 말한다. 몸을 움직이기 전에 자리에서 체온을 재야하며 경구 체온계보다 항문 체온계 편이 좋은 편이다. 건강한 여성의 기초체온은 배란, 월경 등의 주기에 따라 변화하는데 대개 1개월 사이에 저온, 고온기를 갖는다. 이러한 변화가 다달이 계속되고 임신을 하면 프로게스테론이란 호르몬의 영향으로 고온기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

배란일을 측정하는 방법은 저온기에서 고온기로 기초체온의 변화가 생기는 날, 즉 온기 최후의 날을 배란일로 여기면 된다. 월경 중이거나 월경이 끝나고 한동안은 저온기이고 배란일에 이르면 기초체온이 상승하여 그로부터 약 2주간 고온기가 계속된다. 그후 다음 월경이 시작되기 직전에 기초체온이 다시 내려 간다. 그러므로 배란일로부터 셈하여 3주가 경과해도 체온이 높고, 월경이 시작되지 않았을 때는 일반적으로 임신일 가능성이 많다. 이 방법에 의존하는 여성은 매일 아침에 체온을 측정하여 그래프에 기록을 하는데 제일 큰 결점은 배란 전의 안전한 기간을 미리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월경주기법의 일종으로 배란을 추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질점액측정법이 있다. 배란이 가까와지면 호르몬의 영향으로 질점액이 많아지면서 끈끈해지는데 이로써 배란가능성을 추정한다. 월경이 끝난 후 부터 몇일 동안은 점액이 전혀 분비되지 않아 질내부가 비교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배란 수일 전부터 점액이 분비되기 시작한다. 초기의 점액은 흰색을 띤 끈끈한 점착성의 물질이나 점차 색깔이 옅어지다가 배란 24시간 전에는 달걀흰자와 같이 거의 투명하고 미끈거리는 점액으로 변한다. 그리고 배란 후에는 점액이 다시 흰색으로 되돌아가거나 분비되지 않는다. 그러나 질 점액이 다른 질내 분비물과 섞여 배란일을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고 무배란성 월경주기를 가진 여성일 때는 더욱 알기가 힘들다.

먹는 피임약

간단한 피임약(Pill)이라고도 불리우는 경구피임약을 복용하는 피임법이다. 계속 복용한다면 가장 확실하게 안전한 피임법이고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피임법이기도 하다. 제일 많이 복용되는 피임약 종류가 인위적으로 합성된 에스트로젠과 프로게스테론을 혼합시킨 알약이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간기능장애가 있는 여성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40세 이상의 여성도 복용치 않는 것이 좋다. 복용을 중단한 후 1개월에서 6주 후면 다시 배란이 시작되어 임신이 가능하게

된다.



▲구강피임약



▲질상정제

살정자제

성교 전에 질 속에 삽입하는 화학 물질로 정자를 죽이거나 포말이나 액체가 되어 정자가 자궁에 진입하는 것을 막으면서 피임효과를 보는 피임법으로 젤리, 질좌약, 또는 얇은 종이장 같이 만들어진 제품 등 많은 종류가 있다. 크림, 젤리, 발포제, 좌약, 정제, C필름 등의 종류가 있다. 성교하기 전 질상부와 자궁경관이 맞닿은 부위까지 깊숙이 삽입하면 된다. 작용시간은 1시간 정도이므로 제성교 시에는 다시 삽입하여야 되고 성교후 6시간 정도는 질세척을 피해야 한다.

자궁내 삽입장치(IU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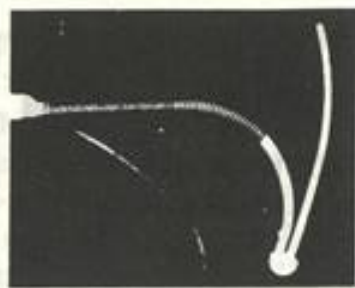
흔히 루프라고 불리우는 장치로 자궁내에 설치하는 것이다. 작용기전은 정자가 난관에 이르는 길을 방해하고, 자궁내막에 국소적 염증을 유발시키거나 이물질로 작용하여 일단 수정된 난자라 하더라도 착상이 안되게끔 한다. 출산을 한 경산부에게 권장되거나 이용되는 방법이다. 널리 쓰이는 방법이지만 염증, 자궁외임신, 하혈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미국에서는 1980년대 들어와 이 장치의 사용을 거의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루프의 종류로는 크게 자궁내에서 화학적으로 활성화 되는 것과 안되는 것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비활성화되는 것의 대표적인 예가 리페 루프이고 활성화되는 것으로 얇은 구리줄로 감은 것이나 황체호르몬이 코팅되어 있는 여러 종류의 루프가 있다. 화학적인 물질이 코팅되어 있는 경우 황체호르몬은 매년, 구리는 매 3~4년마다 교환하는 것이 좋다. 구리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구리를 입힌 루프를 사용해서는 안되겠다.

삽입시기는 월경이 끝날 무렵 또는 끝난 바로 직후이다. 이때는 자궁경부가 약간 열려 있어 삽입도 쉽거니와 임신이 아닌 것을 월경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가장 이상적이다. 끝반에 원래 염증이 있거나 염증으로 자주 고생하는 여성, 심한 월경통이 있는 여성에게는 권장할만한 방법은 아니다. 그외에 자궁기형이나 자궁속의 형태이상, 혈액응고장애가 있는 경우는 자궁내 장치가 알맞지 않다.

페서리

원형의 고리모양으로 질에 넣어 자궁경부를 막아 정자의 진입을 물리적으로 막아주는 것이다. 크기가 꽤 크므로 착용이 불편하고 이물감이 있다. 고무 제품으로 등과 같은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끝에는 코일로 된 용수철이 들어 있다. 소독 등 위생적인 면에 신경을 써야하며 크기가 다양함으로 우선 병원에서 사이즈를 재어 둘 필요가 있다. 6개월마다 페서리를 점검하는 것이 좋다.



▲IUD

스폰지

폐사리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킨 장치로 말랑말랑한 스폰지로 자궁경부를 막아 기계적인 차단은 물론, 살정자제도 함께 스폰지에 넣음으로써 화학적 피임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이 장치는 1회용이고 사용후에는 이를 제거해야 한다. 스폰지에 연결된 실 혹은 고리를 잡아 빼면 되는데, 빼는 것을 잊어버려 질내에 장시간 남아 있으면 독성쇼크를 일으킬 수 있다.

피하이식 피임약

살갗의 밑, 즉 피하에 호르몬을 함유한 얇은 대롱을 이식하여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서서히 약효가 나타나게 피하에서 피임약을 분비시키는 방법

불임수술

여성의 경우 생식기관이 복강내에 위치하고 있어 남성의 경우에 비하여 난관절찰이라 부르는 불임수술이 훨씬 복잡하다. 이 수술에서는 나팔관을 잘라 묶기 때문에 난소에서 형성된 난자가 자궁에 도달할 수 없으며 정자도 난자오아 수정을 이룰 수 없다. 최근에는 기술이 더욱 발전되어 하복부를 절개하지 않고 내시경을 이용해 나팔관 절개수술을 하게 되었다.

절박한 응급시의 피임방법

먹는 피임약의 일종으로 부작용도 매우 클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극한 상황에만 쓰는 방법이다. 강간을 당했는데 그때가 배란시기와 일치했다거나 임신을 하면 절대로 안되는데 콘돔이 파손되었다거나 하여 피임에 실패했을 때 큰 부작용을 감수하고 쓰는 방법이다.

모닝 애프터 필(Morning after pill)이라 하며 다량의 에스트로겐이나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혼합약을 복용하는 방법이다. 다량의 호르몬의 사용으로 구토나 가슴의 통증, 두통, 현기증, 유방통 등등이 있으며 폐에 물이 피기까지 할 위험이 있다.

다량의 에스트로겐이 난관의 운동을 저하시켜서 자궁외임신이 증가하기도 한다.



‘성포럼’의 기획과정과 그에 대한 정보들

“남기고 싶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곱씹어서 남기고 싶다. 그래서 그걸 같이 나누고 싶다. 인사말들과 소감으로 가득찬 팜플렛은 넘쳐난다.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자료들을 유포하고 싶다.” 이것이 어쩌면 장황해 보일지도 모르는 자료집을 만들게 된 이유이다.

<자료화할 것은 다음과 같다.>

- 연구과정
- 기획과정
- 섬의과정

<연구 과정>

‘충전없는 에너지의 발산은 결국 소진으로 치달을 수 밖에 없다.’

— 뿌리내림 2기 성포럼기획자 조연희

95년 여름, 외부포럼 개최의 부담감으로 짓눌리던(?) 우리들이 새로운 내부역량의 축적을 위해 생각해낸 숨구멍이, 바로 ‘프로젝트 세미나’였다. 지금은 포럼단의 일상적인 프로그램인 ‘작은 열린 포럼’으로 정착화되어 있는데, 기획단 내부의 관심 주제를 3-4주에 걸친 다양한 형식의 세미나를 통해 풀어내는 시도였다.

성에 대한 포럼단의 관심이 형성된 것은 이때부터였다. 성 세미나는 문예 아카데미-sexuality의 문화풍경-수강, 여성학 시각에서 ‘성’과 ‘가족’ 바라보기, 서투른 ‘자신의 성 이야기 하기’로 이어졌다. 이렇게 진행되던 중 우리는 서동진씨의 성정치학 문건을 접했고 자연스레 당시 생소한, 그러나 매력적인 담론인 성정치학과 접점을 이루었다. 서동진씨와의 세미나와 동성에 자인권협회 일일호프, MT, 제 2대학 성정치학 강연 등 기력도 좋게 쫓아다니며 우린 개인적 갈증을 풀어내었다.

하지만, 막상 성정치학을 비롯한 수많은 성담론들을 소화해내 일방적 강연이 아닌 우리의 목소리가 담긴 ‘성’을 이야기하는 데는 막막함이 앞섰다. 그때까지 답습해왔던 대담과 토론을 통한 닫힌 포럼 형식에 얽매어 성을 규격화해 내려 했었고 따라서 역부족을 느꼈다. 이렇게 성포럼은 윤곽도 드러나지 않은 채 연기되고 ‘성’관련 포럼화는 소강상태에 빠진다...

한편, 96년 초 방학기간 중 성포럼의 직접적 계보(?)와는 별개의, 실험적 세미나가 시작되었다. 이 ‘소통 세미나’는 글로리아 스타이넵의 ‘남성의 말, 여성의 수다?’([여성망명정부에 대한 공상] 현실문화연구)에서 영감(?)을 얻어 시작되었고 이후 ‘성포럼’의 기획과정에 흡입되어진다. ‘여성은 구체적이고 배려적인 언어구사법을 쓰는 반면 남성은 공격적이고 추상적인 언어구사를 한다’는 등의 성차에 따른 대화유형법을 실제로 연구해보고 ‘수다떨기’의 대화법을 이용해 포럼단내의 소통을 풍부화해보자라는 생각에서 시도된 세미나였다. 이 세미나에서는 나아가 ‘배려의 심리학’인 게슈탈트 심리이론을 다뤘고 치료기법인 ‘자화상 그리기’를 포럼단만의 소통

구조로 활용할 수 있었다.

소강상태에 빠져 있던 '성포럼'에 또 하나의 영향을 준 일이라면 마광수선생님과 만남이었다. 마광수선생님의 해직문제는 우리 사회의 닫혀진 성의식과 지식인들의 허위의식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것을 느끼며 우리는 그동안 가깝게, 쉽게 접하게 되는 현실 속의 '성'의 문제-성의식의 개방화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성지식, 성폭력...-는 상대적으로 간과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일련의 경험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현실 속의 성, 대학인들의 성을 포럼화해 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성을 담아낼 새로운 포럼의 형9식을 구상해낼 필요가 있었다. 연극기법, 민중극기법의 도입 등 기획단계의 시행착오를 겪은 후, 서동진씨의 '여성주의적 시각의 부족, 패권적 남성성의식의 기획안'이라는 지적에 따라 수정을 거쳐 마지막으로, '소통소모임'에서 시도되었던 그림그리기 형식이 도입되었다.

우리가 열어젖히는 이 '성포럼'이 성정치학적 시각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 아직 선정적(?), 대상적 성의식을 내보이고 있다는 것 인정한다. 그래 뒤죽박죽한 담론들의 어색한 동거일런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들이 하고 싶은 것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포럼이 이후에 있을 여러 '성'에 대한 소통 시도들의 연결고리가 되고 싶다는 것, '성담론'이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을 말하고 느끼는 것에서 부터 시작한다는 것, 그럼으로써 우리 이 사회의 성에 대한 왜곡과 침묵의 독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

예전 '성 이야기'에의 쑥스러움과 침묵이 이제는 자연스러움과 소통으로 바뀌어진 나와 포럼 단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생각이다.

<기획과정>

-- 뿌/리/내/림 4기 성포럼기획자 이현준

0. 기획에 들어간 시기: '소통소모임'의 활동이 정리되기 시작한 2월 중순

1. 초기의 기획과정

-기획팀의 구성원

'뿌리내림' 1기 93학번 주현숙, 95학번 조연희, 2기 93학번 김진아, 4기 이현준(필자)

-논의의 시작

'마광수 필화사건을 둘러싼 성의 문제와 검열의 문제'에서부터

-초기의 포럼 방식

연극기법을 사용하고 후반부에 토론을 배치한다. 연극과 토론은 가능한 상호 소통적이게 한다.

-연극의 내용

배경은 성의 모순이 사라진, 곧 성의 구별과 그 억압관계가 사라진 성적으로 해방된 사회 첫 장면은 그 사회에서의 공동 극장 안. 영화의 내용은 과거의 '마광수필화사건공판'을 다룬 영화가 상영되고 있고, 사람들의 반응에 집중한다.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개탄에서 시작함. 그리고, 그런 내용에서 오히려 마교수의 보수적인 여성관과 성관념을 꼬집는 분위기이다. 그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연극은 진행된다.

-반전의 시작

세부적인 논의 과정에서 마광수교수의 문제를 '성'의 문제로 다가갈 것인가, 아니면 검열 및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다가갈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됨. 그 중에서 현재 대학사회 내에서 신입생에 대한 성관련 프로그램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각 대학의 상황에 착목하자는 데에 의견이 모아짐.

2. 중기의 기획과정

-시기: 96년 3월

-초기의 설문 작업 (자료 개제)

성의 문제에 접근하는 데 '설문작업'을 채택하고, 기획 회의에서 설문내용을 취합한 후, 위의 기획팀 구성원들이 각각 5명씩 맡고, 각 1명씩 더 5명 설문작업을 할 사람들을 선정해서 총 40명의 설문결과를 수집할 수 있었다. 그 후에도 각자는 사석에서 이 설문을 활용하여 확장된 설문작업을 계속하였다.

-설문의 결과 분석

1. 설문의 답변에서 서로 모순되는 점들이 자주 보였으며, 특히 나름대로 진보적인 성의식과 현실에서의 구체적 판단 사이의 괴리에 인한 것들이 많았다.

2. 피임법 등의 성지식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거의 없었다.

3. '성추행'과 같은 문제의 경우 여성조차도 자신의 문제와 결부시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설문방식에서 특이할 점

특수한 주제이니 만큼 설문지를 나누어주고 적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화'를 하는 형식으로 작성할 것과 설문작업을 하는 개인이 '설문'이라는 틀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 대한 강조가 설문자 자신의 변화 등을 포함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냈다.

-설문 작업 이후의 문제 설정

희미하게 드러난 어떤 이중성이 문제의 핵심이 아닐까라는 실마리를 잡는다. 그리고, 그것에 관심을 집중하기 시작한다.

-설문과정에서 결실하게 만났던 사람들

설문과정이 확대될수록 사람들과의 대화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것은 가까이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서부터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까지 차별을 갖지 않았는데, 그것은 바로 '임신중절'의 경험을 갖고 있는 여학우들의 경험을 하나둘씩 듣게 된 것이다. 그 여성들을 공통적으로 그 경험에 대해서, 낙태가 죄악이라는 일반적 인식은 혼전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공포를 무시하는 첫번째 폭력이고, 대부분의 병원에서 처해지는 비인격적 대우와 시술 과정은 거듭 가해지는 폭력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역시 어떤 이중성을 읽을 수가 있었다.

4. 후기의 기획과정

-시기: 96년 4월에서 5월까지

-기획의 개념

대답해 가면서 스스로 체험하고 끝난 후에 자신이 바뀌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설문'과 같은 프로그램이어야 하지 않을까. ->행사장 입구의 물음.

-게릴라 토론

기존의 문제 제기방식과 홍보의 방식을 깨뜨릴 수 있는 시도로서, '민중연극론'을 쓰고 조우키

시스템을 만든 아우구스트 보알의 '보이지 않는 연극' 기법의 차용.

- '자신의 성' 그리기

소통에 관한 연구과정에서 얻어진 방식으로, '그림 그리고 이야기하기'의 방식을 성의 방식에 적용한 예로, 말로 표현하기 힘든 주제일수록 효과가 높다. 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적용에 좋은 편이다. 또한 처음 보는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승효과도 있다.

<섭외과정-성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려는 이들을 위해>

덜 익은 기획안을 가지고 우선은, 연대 사회학과 교수이시고 '또 하나의 문화' 동인이신 조혜정선생님을 찾아뵈었다. 선생님의 기획안에 대한 조언과 '학내 성추행 지도 그리기', '치한 피치법 시연' 등의 아이디어는 기획안을 보완하는데 보탬이 되었고 무엇보다 포럼에 도움 주실 분들을 소개받을 수 있었다.

우리는 그 다음, 조혜정선생님께서 추천해주셨던 분들에게 마수(?)를 뻗었다. 여성신문의 김효선편집장님과 차병원 여성클리닉소장 안명옥선생님.

성지식에 관한 저술, 강의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시는 산부인과 전문의, 안명옥선생님은 피임법 등 성의학에 관련한 강의를 부탁드리면 좋을 분이다. 이외에도 성의학에 관련한 강의는 박금자선생님이나 한국성폭력 상담소에 의뢰할 수 있다.

이외에도 우리는 섭외과정에서 서동진씨의 날카로운 비판과 조언을 받을 수 있었고 나중에는 핵분열식으로 추천을 받아 변혜정선생님과 이대 여성학과 대학원 석사 윤자영씨, 문화과학 편집위원 김수기씨 등의 소중한 만남을 가졌다.

기획과정에서 뛰어졌던 각 학교 성정치위원회 등 성관련 모임 인자와의 만남도 소중한 만남이었다. 자체적인 역량으로 고립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성관련 모임들을 만나가면서 그들간의 연대의 필요성과 이와 관련한 그들의 욕구를 느끼기도 하는 기간이었다.

이 지면을 빌어 그동안 포럼을 여는 데 도움을 주셨던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특히 우리의 게으름과 준비부족으로 많은 폐를 끼쳐드렸던 안명옥선생님, 마광수선생님께 죄송한 마음을 전해드리려 한다.

이후 성에 관련한 강좌나 포럼을 개최하실 분들을 위해...

김효선편집장님: (여성신문) 581-3492, 581-0073

조혜정선생님: (연세대학교 교수실) 361-2420

안명옥선생님: (차병원 여성클리닉) 546-2511

박금자선생님: (박금자 산부인과) 841-5496

한국 성폭력 상담소: 573-1888, 579-4271~2

연세대학교 여성연구소: 361-3572

<당시의 초기 설문내용>

지금부터 질문이 시작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답하셔도 되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자신의 성(sex gender)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자신의 나이는 얼마인지요?
 3. 이성과 교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스킨십을 통한 접촉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4. 일부일처제를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5. 연애는 동시에 몇 명과 할 수 있습니까? 혹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6. 연애와는 별도로, 이성과의 성관계는 같은 시기에 몇 명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7. 자신은 혼전에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8. 자신의 배우자, 혹은 연인은 육체적으로 순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9. 처음 알게된 사람이 너무나 좋아 졌습니다. 그 사람을 만난 첫 날, 어디까지 성적 접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 피임법을 몇 가지나 알고 계십니까? 아는 대로 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중에서 실제로 사용법을 알고 계신 것은 얼마나 됩니까?
 11. '남자의 성감대는 페니스 한 곳이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12. 자위행위는 도덕적으로 건감치 못하고, 육체에도 해를 미친다. 고 생각하십니까?
- 가정을 해 봅니다.
13. 자신이 처음으로 성경험을 했을 때, 누구에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까?
 14. 자신이 남자나 여자에게 성추행을 당한 후에, 어떤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 가벼운 성 추행과 성 폭행의 경우로 나누어서 그리고, 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인 경우와, 아는 사람일 경우를 나누어 설명해 주십시오.
15. 실수로 혼전에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였습니다. 남자라면 자신의 연인이 그리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주위에 알려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16. 마지막으로 위의 설문을 답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

이 설문은 저희 '뿌/리/내/림'이 준비하고 있는 외부 성포럼을 준비하는 데에 쓰일 사전 논의용 사전 설문지입니다. 이는 현재 대학 사회내에서 만연하고 있는 성담론에 비하여, 대학생의 성의식이 이중적임에 주목하여,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기인하며 그 타개책은 무엇인가를 모색해 보는 자리로 마련할 것입니다.

하여, 이 설문은 신변이 보호되고, 공개되지 않음을 '뿌/리/내/림'의 명예를 걸고, 약속드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이 한 문항 문항을 답해 가시면서, 자신의 위치를 찬찬히 가늠해 볼 수 있는 꺼리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되며, 저희의 프로젝트인 '한명당 다섯명씩 얘기해 보기.'에 참여하시면, 기획과정에 참여하시는 것이 됩니다. 성실히 응답해 주신 데 대해 감사 드립니다.

제목 : '지금 당신곁에도...' - 대학, 일상, 폭력, 성...

성포럼 : 대학사회의 이중성을 넘어서

판수 : 0-1

일시 : 1996-5-1

용도 : 외부 요청을 위한 제출용 기획서.

작성자 : 뿌리내림 4기 대표 이현준

공동주최 : 한양대 여학생위원회, 서울대 (자연대 성방, 사범대 성정치국)

<행사개요>

1. 게릴라 토론
2. 본 행사 1부
3. 본 행사 2부

<세부진행>

1. 게릴라 토론

장소 :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안정성 필요

내용 : 상황1: 포르노, 상황2: 성추행(별첨)

의도 : 도발적 문제 제기로 침체된 대학 논의 구조에 돌을 던져 학내에 파장을 불러일으킨다. 일간지나 월간지, 대학 학보사등 가능한 모든 여론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효과는 이 문제가 마광수교수의 복직과 우희정씨사건등 아직도 묻혀 있는 문제를 여론화하는 기회로 삼는 데에 방점을 찍는다.

hint : 보이지 않는 연극기법.

2. 본 행사

2.0 입구에서의 상징적 설문 작업과 좌석배치의 색깔별 구역화

입구에 크게 쓴 글씨로 물음과 함께 색깔표를 나누어 준다.

"성경험(내가 생각하는)은 해 보신 적이 있나요?"

- 있다:빨간색 없다:분홍색 NO COMMENT:녹색(색변동가능)

행사장에 들어가면, 바닥에 색깔테이프를 붙여놓아서 자신이 있는 자리가 억압되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느끼게 해 줌. (너무 의도적이라면 그냥 색 구분만)

2.1 1부 행사는 성의 문제로 답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연스러워져야 한다. 그래야 얘기할 수 있다.!!!

-행사장 안의 자리 배치

크게는 위의 영역으로 자리를 구분하고, 각 영역은 10명 정도가 둘러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는다. 그리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정도의 탁자를 그 자리 안에 배치한다.

-행사진행 요원의 자리별 배치

2.1-1 2.0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해프닝을 서로 물어 보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다.

선배와 후배들이 같이 온 경우, 연인이 온 경우, 동기들이 온 경우, 등....

그 전에 각가의 색깔영역에 있는 사람들 중 같이 온 사람들을 손 들게 하고, 그들의 느낌을 물어보는 형식으로 해서 분위기를 띄운다.

2.1-2 '자신에게 있어서의 성'을 그리는 시간

준비된 도화지와 크레파스로 자신이 경험한 혹은 생각하는 '성'을 그린다. 그림은 구체적이어도 좋고, 상징적이어도 좋다. 그리고, 10명이 한 조가 되어 그 그림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 한다. 질문을 해도 좋고, 먼저 설명을 해도 좋다. 그런 후에 그 그림은 수거해서 여성들의 그림과 남성들의 그림으로 나누어 진열하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그 느낌을 평한다.

각 조에는 그림그리기 경험이 있는 진행요원이 배치되어 진행을 돕는다.

패널들도 그림을 그리는 것에 참여한다.

2.1-3 피임! 피임!

피임기구를 갖고 서로 이야기 해 본 후에 설명을 하는 순서. 주로 약과 콘돔을 가지고 일반적 피임법이 갖고 있는 '여성의 신체에 대한 대상화'를 중심으로 사용의 느낌을 갖고 가벼운 토론을 한다.

<P.S> 이 부분 중에는 자리를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그 이유를 물어보는 것으로 스스로의 변화를 체크할 기회를 준다.

2.2 본 행사 - 패널토론 후 분임토론과 정리

2.2-1 패널 토론

서울대 - '대학사회의 성 관계의 양상과 폭력적 성관계(가제)'

- 서울대 성정치국 박진석, 성폭력연구소 전임연구원 변혜정씨

서울대 자연대 성방 백성인, 서울대 사범대 성정치모임 김지연

한양대 - '포르노, 재현된 성관계에 관하여'

초청 패널자와 학생 패널 세 명, 그리고 사회자 한 명이 단상에서 간단한 발제와 토론을 한다. 어느 정도 입장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을 때에 패널 토론을 마친다.

패널 토론은 각각의 영역에 따라 약간의 차 등을 둔 토론을 한다.

2.2-2 패널 토론이 끝난 후 각 토론자들이 각 색깔 그룹의 가운데로 나가 분임토론을 주제한다. 분임토론에서는 하나의 의견만 나올 필요는 없고, 각각의 의견이 어떠한지를 충분히 수렴하여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으면 된다. (약 1시간 정도)

그리고, 각 분임별 토론이 끝난 후엔 각 조의 성원들이 자신들의 내용을 정리 발표하고 그 가운데 난상토론도 가능하다.

2.2-3 토론의 정리.

각 토론자는 다시 단상으로 올라온다.

기본적인 몇가지 논점들이 분임토론상에서 어떻게 논의되었는지를 간략히 발표하고, 그룹별 논의과정에서 특이할 만한 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을 정리한다.

제목 : 게릴라 토론을 위한 사전 쏘티 - 성주행 상황

판수 : 0-0

작성일시 : 1996-4-28

용도 : 토론 준비를 위한 기초 대본

작성자 : 뿌리내림 성포럼 기획팀 조연희

장소, 시간: 점심시간대의 학교 식당 등 학생밀집 장소

필요구성원: 가해자 남1, 피해자 여1, 피해자의 여자친구1, 증재자 남1, 다수의 동조자

미래의 가해자 남, 혼자 앉아 천천히 밥을 먹는다. 그 옆에 조금은 노출된 옷을 입은, 미래의 피해자와 친구가 식판을 들고 앉는다. 미래의 가해자, 관심있게 쳐다보다가 이내 밥을 계속 먹지만 다시 힐끔힐끔 쳐다본다.

시간이 조금 지난 후, 가해자 가방, 숟가락 등의 물건을 떨어뜨리고 옆에 앉은 피해자의 몸에 고의적으로 밀착시키며 그것을 줍는 시늉을 하다가 (이때 피해자는 싫은 기색으로 몸을 피한다.) 일어서면서 피해자의 몸(허벅지...)을 만진다.

피해자: (당황해서 주춤, 일어서며) 어머! 뭐야.. 뭐하는 거예요?

가해자: (좀 당황한 빛을 보이거나 아무렇지 않게 서둘러 밥을 먹는다)

친구 여: 무슨 일이야? 왜 그래?

피해자: 저 자식이 뭘 줍는 척하면서 내 몸을 더듬잖아..

친구 여: 뭐야!

가해자: 뭐요? 내가 언제 몸을 더듬어?

숟가락(or 가방)이 떨어졌길래 그것 줍다가 실수로 좀 닿았을 뿐이지 언제 몸을 만졌다고 그래?

피해자: (좀 주춤, 당황한 빛을 보이면서) 어머.. 그게 실수라고!

가해자: 별.. 괜히 생사람 잡고 그러네..

피해자: 아니, 허벅지를 살짝 건드린것도 아니고 만졌으면서 그게 어떻게 실수로 한 일이라는 거야?

친구 여: 뭐 치한이 실수라고 그러지, 사실대로 말하나?

어떻게 지성인이라는 대학생이 학내에서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가해자: (친구 여를 가르키며 일어난다) 뭐, 이 여자가... 아니 당신은 보지도 못했으면서 어떻게 사람을 치한으로 몰아? 그러는 당신들은.. 지성인이라는 당신, 여자들이 하고 다니는 꼴이 그게 뭐야? 여기가 밤거리인줄 아나?

친구 여: 아니 왜 남이 하고다니는 것 가지고 뭐라 그래!

도둑이 제발 저런 거 아냐?

피해자: 그래서? 밤거리 여자 같아서 건드려도 된다고 생각했니? (->요건 너무 했나?)

가해자: (가방, 식판을 거칠게 쟁겨들고, 의자를 박차고) 별 거지 같은 여자들(좀 심하게 하려면 욕을 해도 되겠지..) 다보겠네..

피해자: (가해자의 길을 막으며) 뭐야? 이 자식이... 피하면 다야?

이때 가까운 자리에 앉아 이들을 보고 있던 남자가 일어나 가까이 다가와 말린다.

증재자 남: 왜들이래요.. 다들 좀 진정하세요...

피해자: 지금 진정하게 됐어요?

이렇게 그냥들 넘어가니까 저런 사람이 아직도 있잖아요?

구경꾼 1: (자기 자리에 앉아서..) 거.. 남자가 미안하다는 말 하면 돼잖아요..

구경꾼 2(여): 아니 어떻게 미안하다는 말로 끝나요.. 그게.. 실수도 아니고 고의로 한 거 같은데..

중요한 것은 연기라기 보다는, 토론을 이끌어 내는 전체적인 분위기의 설정이다. 엑스트라로 다른 군중들 속에서 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기는 끝까지 진지함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

*작은 몸짓의 반란!

대학인의 포럼 뿌/리/내/림이 신입회원을 모집합니다!

다가오는 새로운 세기에, 세계를 주도할 무기는 바로 **상상력**과 **창의성**입니다. 이를 얻고 발전시킬 원하는 분들을 저희는 환영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자기 혼자만 아는,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사람은 원치 않습니다. 열린 자세와 열린 마음을 갖고, **다양성**을 포용하며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분들을 바랍니다. 이러한 분들과 함께, 무한한 가능성의 텃밭을 일구고자 합니다.

이런 분을 저희 대학인의 포럼 뿌/리/내/림의 신입회원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현재 대학 재학 중인 95~96학번이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오늘 행사 후 뒷풀이에서나, 후에 대표의 호출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인의 포럼 뿌/리/내/림 4기 대표 이현준(012-816-6037)

* 대학인의 포럼 뿌/리/내/림은 올해 1학기중에 지속적인 활동의 일환으로서, 또 하나의 외부포럼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실행될 포럼은 '인물포럼'형식의 포럼이며, MBC 문화방송 아나운서이신 [현]님을 모시고 '한국 언론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또 선포일에 관해 우리가 궁금해 하는 것들, 묻고 싶은 것들에 대해 서로 서슴없이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나 한국언론문제에 대해 학문적이고 피상적인 시각이 아니라, 보다 생생한 현장적 시각으로서 접근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믿으며, 또한 저희는 이번 포럼을 한정된 인원만을 수용한, 서로간에 보다 많은 의사를 소통할 수 있는 장(場)으로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후원회원을 모집합니다!

상상력과 창조력으로 열어나가는 새로운 시대. 대학인의 포럼 뿌/리/내/림의 움직임에 직접 동참하시진 못해도, 그 성과물들을 함께 나누실 후원회원을 모집합니다. 기획단은 아니지만, 저희의 후원회원이 되셔서 각종 활동에 우선적으로 참여, 신선하고 참신하며 기발한 아이디어들의 흐름을 맛 보실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흐름에 대한 든든한 지원자로서 선각자적인 역할을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대학인의 포럼 뿌/리/내/림의 후원회원이 되신 분께는 매달 정기적으로 발간할 예정인 뿌/리/내/림 소식지를 보내드리며, 일련작은포럼 및 기타 각종 외부포럼행사에 우선적으로 참가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올 2학기중에 처음으로 발간될 무크지를 무료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외 저희들이 활동현장에서 취득하게 되는 각종정보들을 제공해드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속에 뿌/리/내/림은 굳건한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후원회원이 되시려면

4기 대표 이현준 (012-816-6037)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오늘 행사 후 뒷풀이 시간에 기획단원들에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혹은 '나우누리id:플루리,천리안id:q1006' 앞으로 메일을 보내셔도 됩니다. 후원회원님은 1년에 2만원의 후원금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포럼에 재정적인 도움을 주신 분들....

삐에스 몽테

제과점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 처절했던 외침이 당신의 가슴속에서 살아난다.
"아줌마, 빵 좀 줘요. 잉.."
녹두거리 입구에 있습니다.

카르멘 노래방

노래하고 싶을 때,
춤추고 싶을 때는
카르멘과 함께!
원샷바, 녹두호프 골목의
끝쪽에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항상 대학의 지성인과 함께 숨쉬어
온 녹두거리에 있는 사회과학서점.
이곳에서 친구에게 책 한권 선물하는
여유를 가지는 것은 어떨까요?

포스트 모던

레스토랑

서울대생이여, 모든 세미나는
포스트 모던에서!
앞서가는 지성인과 함께합니다.
돈까스가 특히 맛있어요.

영화사당

"좋은 영화를 만날 수 있는"

영화사당 비디오 감상실.

영화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많이 많이 오세요.
다양한 선택의 폭으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